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41.92	↑ 코스닥	705.76
	(+42.98)		(+19.13)
↓ 금리 (연이자율)	2.482	↑ 환율 (원/달러)	1469.70
	(-0.025)		(+3.10)



분열·대립 정국에 방치된 사회·경제

2025 신년기획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
양극화 수렁 - 정치

지난 1970년대 말, 아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다. 조그만 유치원생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한 동안 달고 등원했다. 그 10·26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군부독재가 생겨났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쳤으나 군인출신 정치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이 문민정부의 탄생은 노태우 정권과의 야합에서 비롯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정권은 교체됐다. 야합의 최대 피해자이자 군정의 대적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

한반도 정치지형 양분 심화
지역주의 기반 정치보복 난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불지퍼
정치갈등 속 사회·경제 뒷전
세대·남녀·집값 편차 심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정 리본을 달던 아이들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중에 1개만을 선택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주의는 심화했다. 양당의 기반이 각각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 정치보복이 난무했다. 한편으로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이익을 내세우는 정당 등이 점차 실 곳을 잃어 갔다. 상대편에 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대두됐고 제3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 30~40년 사이 어렵사리 얻어낸 민주주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한다. 하지만 군부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지난 20~30년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다. 호남 대 영남, 강남 대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다. 무엇보다 진영논리가 상대를 헐

뜯고 또 헐뜯었다.

◆ 혼돈의 시대, 개헌론 다시 수면 위

한 달 전 12·3 계엄 사태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를 기회로 개헌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위기 때마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등이 줄곧 거론되곤 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 중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하순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잠룡 또는 정치인) 이 시기에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헌을 추구하는지 제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개헌론이 이 같은 시국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정치원로들의 경우, 지난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상·하원 또는 참·중의원 등), 지방분권 신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3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4년 중임제를, 15%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 증시 쾌조 출발했지만 방향성 오리무중

정국 불안에도 증시 반등세 이어져
외국인 매수세, 상승여력 확대 주목

코스피의 2440선 회복과 함께 반등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국불안 속에서 기업 실적 둔화, ‘트럼프리스크’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여전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3일 전 거래일 대비 1.79% 급등한 2441.9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증시 상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2454.67까지 올랐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소식에 상승 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3일째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700선을 회복한 705.76에 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3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2847억원을 사들였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국내 증시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달러 대비 급격한 절상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자 국내 증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날 나왔던 패턴처럼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 이를 매도로 누를 주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고점이었던 7월 초 35%에서 현재 31%까지 빠진 상황인 만큼 외국인 수급이 채워지면 만들 수 있는 상승 여력도 크다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尹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

/뉴시스

서울시, 주상복합 상가비율 연면적 10%로 완화

市, 규제 철폐 1·2호 발표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간
기존 48일서 20일로 단축

서울시는 규제 철폐 1·2호 과제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규제 철폐 1호 과제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 및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 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 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해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또 일반·근린 상업 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하면 주상 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 주택도 허용키로 했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 비주거 시설

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고쳐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규제 철폐 2호 과제는 ‘환경 영향 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다. 시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되살려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민주 “與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적… 권성동 뺨뺨”
▲오세훈, 탄핵소추단의 탄핵 ‘내란죄’ 철회에 “이재명 집권 위한 정치적 셈법”
/사진 뉴시스

▲홍준표 “현재 날치기尹 탄핵심리…朴 때도 집단광기 떠올려”
▲경호처, ‘공수처에 발포 명령’ 野 주장은 허위… 법적 대응 예고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거주 중국인에 정치활동 참여할 것 당부”
▲해군, 2025년 첫 해상훈련… 동·서·남해 전 해역 군사대비태세 점검

보험산업에 타격... 모집과정 지출 합리화 등 대응 마련해야

‘트럼프 시대’ 韓 보험업계 전망

대외환경 변화·국내정치 불안정
국내 보험산업 수익성에 악영향
자동차·실손 지급보험금 관리로
안정적 보험영업이익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경제·정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보험산업 역시 타격이 예상되면서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보험업계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예상되는데서다.

2025년 글로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전환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EU(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들은 지난 2023년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의 막을 내리고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미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리티프에서 연설을 마친 모습이 방탄 유리에 비치고 있다. /뉴시스

다. 올해에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 무역주의 강화 ▲포괄적 감세 ▲고립주의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강도 및 시

행시기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 간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의 탈동조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환경 악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기준금리와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시장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는 주식, 채권, 환율 등 우리나라 금

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월 9일 13개월 만에 2360선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12월 말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 및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올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정적 보험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판매채널 및 보험상품 등 보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영효율화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내수부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사업비 지출 합리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상품의 지급보험금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모집시장에서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금리 하락 시 장기적으로 투자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보험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보험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업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금 지급의 경우 내수위축에 따른 보험수요 저하가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상품의 지급보험금 증가와 보험상품 판매망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출 경쟁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보험은 불필요한 수리비 억제를 위해 품질인증 부품 활성화, 고가차의 부품 재고관리를 통한 수리비 인상 압력 억제가 요구된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환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보건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가 요구된다”며 “보험모집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안덕근, 美 방문해 산업·에너지 등 협력 논의

(산업장관)

오늘 출국... 韓 기업 사업환경 점검
워싱턴 D.C.서 상·하원 의원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20일 취임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주요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6일~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 속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6일~7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SK은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고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 대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미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올해 재건축은 빨라지고, 대출규제 강화

2025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구축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7월에 스트레스 DSR3단계 시행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가격 차별화를 비롯해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아파트 청약 성적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새해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축소’ 등으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

SR) 3단계 실시 등이 있다.

1월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만기 전에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단,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정규-비정규직 임금차 175만원 ‘역대 최대’

>> 1면 ‘분열·대립 정국에...’서 계속

◆세대·남녀·집값·도농 편차

그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참여한 대립을 초래했다. 입법이 밀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남녀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격차 ▲생산가능인구의 후퇴 ▲농촌 및 지방 소멸위기 ▲주택가격의 양극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번째 임금격차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했다. 남자 중위 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중위임금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에 그친 것이다.

제작년 남녀 격차는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보다 20%포인트(p) 크다. 아태 지역만 봐도 뉴질랜드(6.3%), 호주(9.9%), 미국(17.0%), 일본(21.3%) 등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정규직(월평균 379만6000원)이 400만 원을 향하는

반면, 비정규직(204만8000원)은 이제 서야 비로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규직 임금의 경우, 17년 전인 지난 2007년에 이미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친 뒤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20대 임금근로자 열명 중 넷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 제한적”

>> 1면 ‘韓 증시 재조출발...’서 계속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내 증시 귀환 흐름을 기대하기 선부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2024년 4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적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상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시장예상치인 8조9000억원, 8조1000억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후 2025년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분간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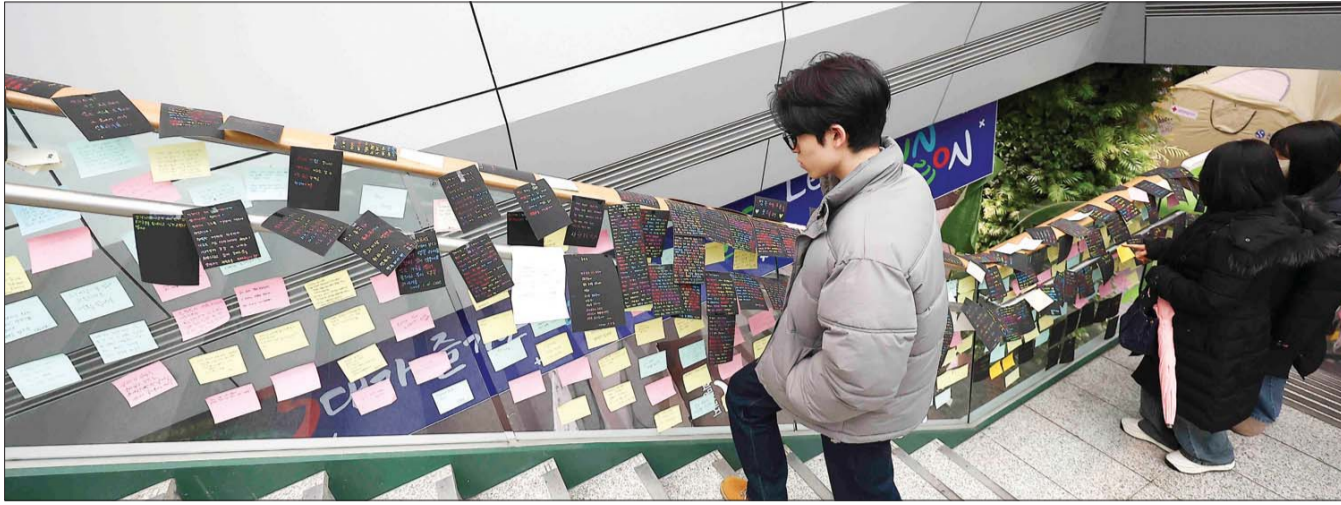
더불어 대외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며 결국 금리 인하를 재개하거나, 트럼프 정권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달러 강세 일변도가 꺾이며 국내 증시도 반등을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여야, 특별법 제정 한뜻... 피해지원·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민의힘 “정부와 협력해 조속 지원 필요시 국회차원 국정조사도 검토”

민주당 “특수성 고려해 법안 준비 생명보다 효율 중시하는 풍토 청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계단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뉴스사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발의하고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의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심리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추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선 특별법과 같이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띄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 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

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에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 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참사와 대형 재난에 관한 특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이번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토부, FDR 美 이송... 원인규명 박차

(비행기록장치)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녹취록 작성 동일기종 운영 항공사 특별점검 실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의 참사 원인을 규명할 비행기록장치(FDR)가 오는 6일 미국으로 이송된다.

5일 국토교통부 중앙사고대청본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손상으로 국내에서 자료를 추출하기 힘든 FDR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사조위 조사관 2명은 오는 6일 출국 예정이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은 국내에서 작성했다.

사고기는 항공기 엔진 1기를 인양했으며, 나머지 엔진 인양과 꼬리날개·랜딩기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자는 179명 전원 신원확인을 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친 가운데 전일 오전 7시 기준 장례식장으로 총 70명을 이송하고, 임시안치소에 109명을 안치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사고 동일기종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이

스타·에어인천·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고 정비인력 확충 등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국 공항의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항공사별 자체 안전강화대책 이행에 대한 수시점검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황지원센터는 합동분항소 운영을 연장하고,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유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말 강설을 대비해 무안공항과 분항소 인근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이나 보상 전 법률상의 상속권자·보상권자 검토, 상속·보상금 우선순위 등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유가족 법률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주항공, 대규모 감편... “안정성 강화”

동계기간 1900편 감축 계획

제주항공이 안전운항을 위해 감편에 돌입하는 등 항공기 운항 안정성 강화에 집중한다.

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운항 안정성과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선 및 무안발(發) 국제선 총 1116편을 감편한다.

감편 기간은 1월 6일부터 동계스케줄 종료 시점인 3월 29일까지다. 국내선 및 무안발 국제선에 한해 감편이 우선 진행되며 추가 비운항 노선은 확정되는 대로 재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감편 대상은 구체적으로 국내선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무안~제주 등 4개 노선과 국제선 ▲무안~나가사키 ▲무안~방콕 ▲무안~코타키나발루 ▲무안~타이베이 ▲무안~장자제 등 5개 노선이다.

제주항공 측은 “비운항이 결정된 항공편은 당사 인접편으로 스케줄 변경도

는 환불 조치를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은 동계 기간 총 1900편의 운항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운항이 잦은 국내선과 일본·동남아시아 등이 감편 대상이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운항 횟수가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감편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선을 포함해 일본과 동남아 등 운항 빈도가 높은 국제선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홈페이지나 개별 공지를 통해 대체편 제공과 예약 변경 지원을 통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편 운항에 따른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송 본부장은 “운항안정성을 확보하는게 최우선이다”며 “현재는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 안전 확보와 고객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희생자 수색 마무리... 악성 게시물 본격 수사

행안부 “장례 후에도 유가족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총 99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날 마무리됐다. 수사 당국은 의미 있는 유류품이나 시신 일부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대적 인력을 투입한 수색 작업을 종료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7일간 동체와 활주로, 갈대밭 등 사고 현장과 주변에서 시신과 유류품 등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사망한 179명의 희생자를 모두 수습했고, 소유주가 명확한 유류품은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179명 희생자 전원의 시신은 절차를 거쳐 이날 유가족들에게 모두 인도됐다.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인도됐는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유류품은 유가족이 확인해 찾아가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후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

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례 후에도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분항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유가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고, 장례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증명 서류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총 99건과 관련 조사 중이다. 전남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악성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악성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보험금 신속 지원

김기문 회장 “사회안전망 역할 충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신속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 희생자들에게 공제금과 단체보험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사 희생자중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

5000만원(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

노란우산은 최대한 빨리 희생자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 나 단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 상담과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 보호·육성만으론 한계… 협력·경쟁 길 열어야**”

인터뷰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사장님들은 버티고 또 버텨야한다. 지금은 살아남는자가 ‘위너(winner)’다. 그냥 버티는 것만으론 안된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면서 버텨야한다. 여기엔 뼈를 깎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에게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버티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

오동윤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유일한 싱크탱크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역임했다. 원장직을 내려놓은 후엔 적을 두고 있던 동아대로 돌아갔다.

오 교수와의 신년 인터뷰는 부산 서구의 동아대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연구실에서 지난 12월 31일 진행했다.

오 교수는 작년 2월 27일 ‘2024 KOSI 심포지엄-왜 중소벤처기업인가?’를 주제로 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기존 ‘산업정책’을 ‘기업정책’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은 살아남는자가 위너
기업정책 중심 구조변화 시급
해묵은 관행 털고 혁신 이뤄야

”

그러면서 헌법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중소기업의 협력·경쟁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손을 대지 않은 채 4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처음 포함시킨 1980년 8차 개헌 당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고작 70만개 정도였다. 정부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던 시기였다. 대기업은 성장하면서 계열사를 많이 늘렸다.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800만 개를 넘어섰다. 이전 보호와 육성 만으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협력’과 ‘경쟁’이란 단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보호와 육성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론화해야한다. 이 말은 꼭 써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업종 중소기업간 협력이 대표적이다.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위해서도 협력은 필수라는 말이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협력의 근간이 되어야한다. 지금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이익을 쫓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조직화도 같은 업종·지역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이전 업종, 지역을 넘어서 협력해야한다. 협력을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김승호 기자

통해 과감하게 글로벌을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분야에서 터부시했던 ‘경쟁’이란 단어도 과감하게 끄집어냈다.

“(예산·정책 지원으로) 나뉠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경쟁을 해야한다. 똑같이 나눠 먹기식은 안된다. 경쟁을 통해 좀더 나은 제품, 좀더 싼 제품이 시장에 먹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간 경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전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 교수는 “여기서 ‘양극화’가 나오는데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만 볼 일은 아니다. 양극화는 인류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만 놓고보면 우리는 지금 평균을 낮춰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위(중견·대기업)로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그래서 경쟁이 필요하다. 좀더 경쟁했다면 오히려 (납품단가 등에서)제값을 받았을 것이다. 혁신도 더 잘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2.1%보다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경제정책총괄부처가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GDP 2.0%’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의미심장하다.

오 교수는 “저성장에 대해선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야한다.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저성장 과정에서 변화를 주고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 산업정책이 아닌 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전 기업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 시기엔 정부가 성장을 주도했

다. 특정산업에 ‘몰빵’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전 기업 그리고 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에선 낙수효과를 염두에 두고 대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정책에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모두 중요하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동반성장 ‘2.0 시대’ 진입
내수 위한 이민정책 필요
미래를 대비하며 버티내야

”

오 교수는 “기업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다 해주어야한다. (정책자금과 같은)돈도 원하는 만큼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지켜보아야한다. 기업의 투자가 모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나 벤처투자도 10개 기업에 투자해 1개만 성공하고 9개가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거나, 그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해묵은 관행은 ‘기업정책’에선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부 정책·예산 지원)성과는 일자리 창출, 임직원 월급 상승 등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면 안된다. 연구개발(R&D) 성과역시 당장 매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때도 기업이 R&D를 하면서 ‘사람만 늘려라’라는 식으로 성과 목표를 단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정책에선 그에 맞는 거버넌스(governance)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조직체계 변화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가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 고용인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성장시켜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보다 ‘큰 조직’을 그려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동윤 교수는 “기업이 우리 성장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조직을 바꿔야한다. 생산요소를 갖고 있는 ‘빅(big)부처’에서 오거나이즈(organize)를 해야 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기업성장부총리’ 체제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정책에 대한 기획, 계획, 조정, 집행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대상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통해 전달돼야한다. 중소기업을 활용한 저출산 해법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정책시대엔 산업부보다 중기부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 교수는 올해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벤트도 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많은 돈을 쏟아붓는 선거가 될 것이다.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다는 것은 이미 깔려 있는 조건이다. 모든 후보가 돈을 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약을 내놓는다고해서)우후죽순으로 받아안 된다. (유권자들은)질서있게 받아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모두 이원화가 필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그룹과 이윤을 창출해 성장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이원화해 정책도 그에 맞게 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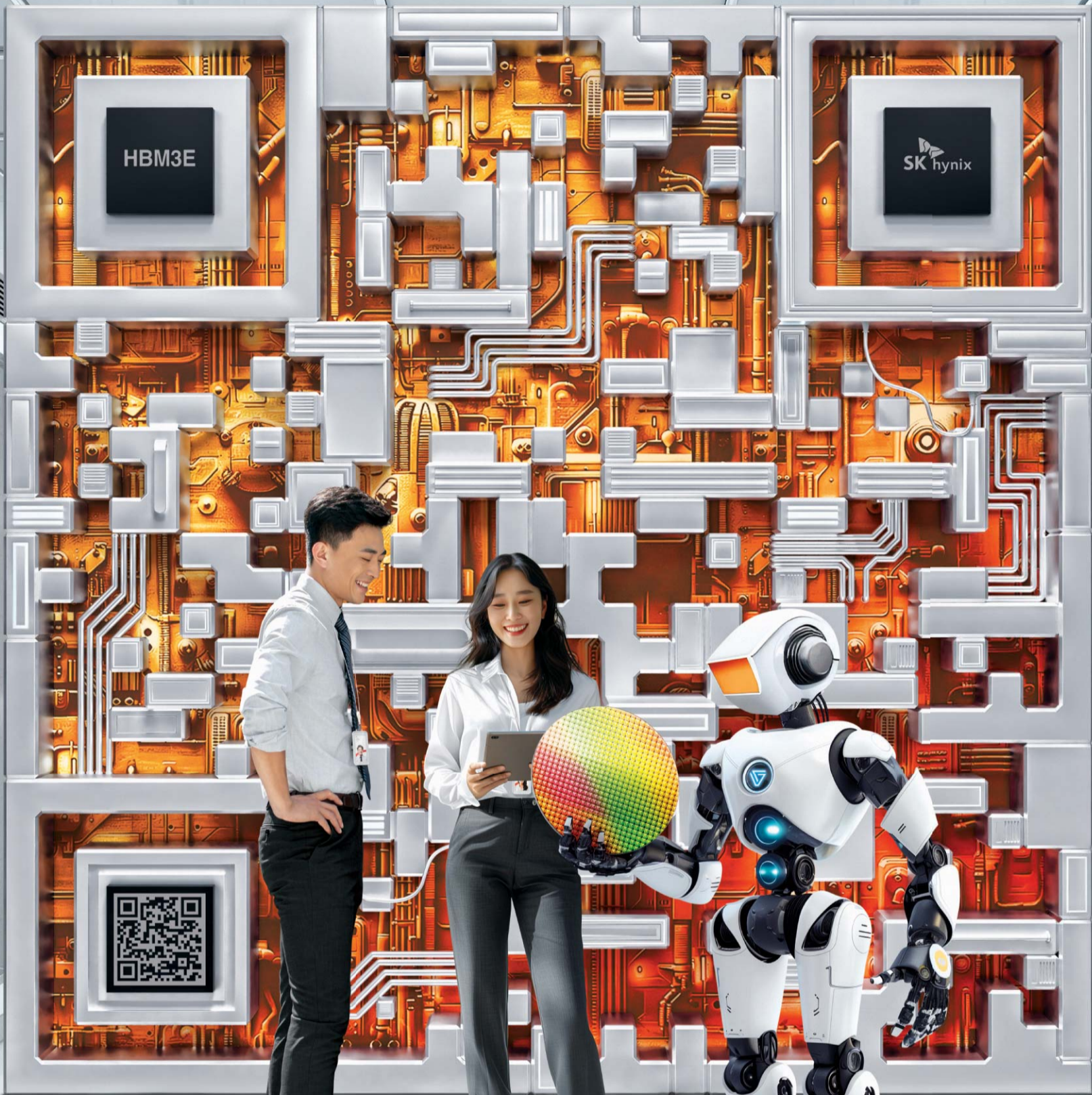
오 교수는 해묵은 과제인 동반성장도 이제는 ‘2.0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동반성장을 계속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 사장하고 직원, 한국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동반 성장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소기업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이전 생산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이민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곳에선 누가(어느 나라 선수)가 뛰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 경기가 재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민주당, 금주 쌍특검 재표결 방침

與野 갈등에 수정안 협상 목소리

국민의힘, 위험적인 요소 지적
독소조항 제거·수사범위 축소 협상
민주당, 부결에도 바로 재발의 입장
명태균 의혹 분리해 이탈표 공약 제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쌍특검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르던 오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더 일찍 재표결하려고 했으나, 12·29 항공 참사가 벌어져 일정이 늦춰졌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

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위험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라서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안 본회의 재의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이상 찬성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192명이 모두 재의결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재의결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 재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해왔지만,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김 여사 특검법(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의원)에 4명이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주차를 맞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내세운 '당의 안정과 통합'은 쌍특검법안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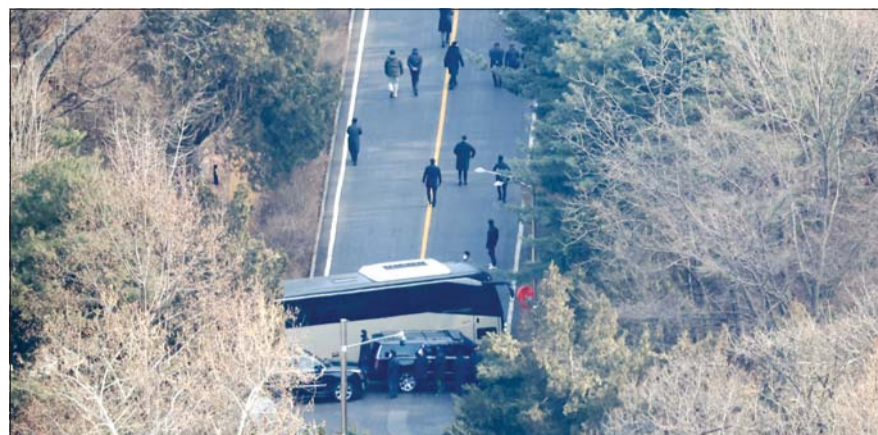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제안 특검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약해졌다"며 "(특검법에) 찬성할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소장파, 소신파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일각에선 특검법 수정안을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요 반대 이유인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식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여권에서 가장 거부감이 심한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에서 분리하는 식으로 수정안을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해야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쌍특검법안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기대선 전망에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尹 방탄 정당 vs 배신자 프레임 속 갈등
대통령 아닌 법질서 지키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호소 입장을 내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면 '내란 동조 정당' '尹 방탄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화한 것을 두고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은 전날(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당은 이들의 집회 참석을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당 차원의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안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지키기'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이 필요해서다. 특히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강성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여당도 관계 단절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얼어붙은 정국... 국정협의회체 가동 '깜깜'

국정혼란 수습 위해 금주 가동 예정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 올릴 방침
쌍특검법,尹 체포에 '대립' 예고

여야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회체의 실무기구를 이번 주 가동할 예정이다. 국정협의회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번 주 내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협의회체의 원활한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협의회체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회체 회의에 앞서 2+2(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한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정협의회체 출범을 합의하고 실무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법 등 미래 민생 법안 처리를 회의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협의회체 실무기구 가동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이번 주 내로 재표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를 부탁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한번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치 끝에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전망인데, 여야 간 긴

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만일 체포영장 재집행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을 때 경호처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崔대행, 긴급 추경 즉각 편성하라"

정책위원회 "민생경제 회복 위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기 내수부진과 12·3 내란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상황 인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이다.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의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고(高)로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신·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마감됐다. 재정이 소비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지방은행, 안정 속 비은행 수익성·디지털 전문성 강화

조직개편·외부 인재 영입 단행
연금·디지털조직 신설, 수익 다각화
iM뱅크, 디지털 혁신·수도권 강화
전북은행, 세대교체로 리더십 강화

지방은행이 연말 인사를 통해 수익 다각화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금리인하 전망에 이자 이익이 감소할 것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금·자산관리 등 비이자 부문 수익 확대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판로 확보에 힘쓰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은 지난해 12월말 연말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각 지방은행이 은행장의 연임을 통해 안정적 경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이번 인사는 외부 인사 영입과 조직 개편을 통한 비은행·디지털 전문성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앞서 5대 지방은행 가운데 3곳(iM·광주·전북)은 인사에 앞서 임기를 마친 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오는 3월 임기를 마치는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도 연임할 것인 관측이 우



서울 여의도 금융가.

/뉴스시스

세하다.

고환율 및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각 은행장 교체로 통한 노선 변경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각 지방은행은 기존 영업전략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편, 연말 인사를 통해 외부 인사 영입과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은행의 약점으로 꼽히는 '비은행 수

익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대 지방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는 평균 95.5%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8.1%보다 7.4%포인트(p)나 높다. 금융앱 이용자 수에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연금·외환 시장 공략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자산관리 전문가인

최재영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이 부산·경남은행 WM·연금그룹 부행장으로, 자금융자 전문가인 정해수 전 신한은행 IPS 기획본부장을 부산은행 부행장으로 영입했다.

조직 개편에서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연금사업부와 시니어금융팀을 각각 신설해 연금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고객부와 디지털영업센터, IT기획본부를 설치해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iM뱅크는 디지털 혁신에 집중한다. 디지털 금융 전문가인 황원철 전 우리FIS 부사장이 그룹디지털마케팅총괄 겸 iM뱅크 디지털비즈니스(BIZ) 그룹장으로 영입됐고, 네이버, 라인 등에서 앱 개발 업무를 전담했던 성현탁 전 KB부동산 플랫폼부 부장도 iM뱅크 ICT그룹 상무로 부임했다.

또한 iM뱅크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국 단위 영업망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 영업 확대 및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에 힘쓰는 분위기다. 김기만 iM뱅크 수도권 그룹 부행장보는 부행장으로 승진했고, 그룹 계열사인 iM데이

터, iM시스템, iM유페이, iM신용정보의 CEO도 iM뱅크 출신으로 교체됐다.

광주은행은 비이자영업 확대에 집중한다. WM고객부와 외환사업부, 카드사업부를 한데 묶은 비이자영업본부를 신설했고, 기관영업부와 신탁영업부도 각각 기관영업본부와 신탁본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과도한 이자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이자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다.

전북은행은 세대교체에 속도를 낸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연말 인사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부행장 4인을 교체했다. 새롭게 부임한 부행장 4명은 모두 1970년 이후 출생자로, 서울지점장, 여신관리부장, 종합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올 한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만큼,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대규모 인사는 없었다"라면서 "외부 전문인력 영입, 그룹사 간 검직 확대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분양 캘린더

둘째 주 전국 3곳서
총 1732가구 분양
전본주택 3곳 개관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732가구(일반분양 88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 충남 천안시 두정동 '천안 두정역양우내안아파트' 등에서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본주택은 부산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부산덕천3차', 대구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레시앙', 세종시 합강동 '양우내안아파트' 등 3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대방산업개발은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31BL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11개동, 전용면적 119㎡, 총 470가구 규모다.

김해국제공항이 가깝고 부천-마산 복선전철(2025년 예정), 강서선(추진),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2029년 예정) 등 교통 호재가 있다. 단지 인근 현대프리미엄아울렛(2027년 예정)과 상업 및 의료시설이 들어서면 생활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양우건설은 세종시 합강동 일원에 '양우내안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동, 전용면적 84㎡, 아파트 698가구, 오피스텔 44실 규모로 조성된다.

KTX 오송역이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 유치원·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미호천, 출동산, 황우산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지원 기자 jiw13@

저축은행 '옥석가리기' 예고... 인수합병 빨라질까

잠재 매출 거론 저축은행 9곳
매각 1순위 대상인 계열 2곳

소문만 무성했던 저축은행 매각이 올해 다시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옥석가리기'를 시작하면서 교통 정리가 이뤄질 것인 관측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잠재 매출로 거론되는 저축은행은 총 9곳(상상인·상상인플러스·HB·OSB·조은·유니온·애뮤온·대원·대아저축은행)이다. 지난 2018년 LED업체인 '시티젠'이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대원저축은행은 대아저축은행 주식 100%를 보유한 대주주다. 대원저축은행은 인수 협상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 중 매각 1순위

로 점쳐지는 곳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2곳이다. 지난달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달 말까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2곳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상인 그룹은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그룹이 매각 속도를 높일 것인 시각이다.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OK금융그룹이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의 실사를 진행했다. 상상인계열 계열 저축은행 2곳의 총자산은 지난 3분기 기준 4조2000억원이다. OK저축은행(총자산 13조7800억원)과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업계 1위 SBI저축은행(총자산 14조8200억원)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충청지역에서 영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영업구역 확대도 피할 수 있다.

애뮤온저축은행 매각설 또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애뮤온저축은행의 대주주는 EQT파트너스다. 지난 2022년 베어링PE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애뮤온계 파탈과 저축은행을 함께 사들였다. 통상 사모펀드 기업이 인수 4~5년차에 엑시트를 시도하는 만큼 언제든 매각이 가능할 것인 분석이다.

이 밖에도 최근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라온저축은행도 매물이다. 지난달 우영훈 라온저축은행 대표는 디스플레이 업체인 '베셀'에 전체 지분 60%를 매도했다. 현재 라온저축은행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금융당국이 원하는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성공한 저축은행 매각 사례는 한화생명의 한화저축은행 인수다. 지난해

10월 한화생명은 1785억원에 한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인수했다. 아울러 앞선 합병 또한 지난 2020년 우리금융그룹의 아주저축은행 인수다.

일각에선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비수도권에 한해 최대 4개 구역까지 진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를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영업 환경이 잘 갖춰진 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지방 저축은행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정상혁 은행장이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자산 중심 영업에 효율적 자원 활용, 질적 성장 중요"

(신한은행장)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
"강유점전 자세로 유연하게 대응"

"자산 성장 중심의 영업에 더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영전략 회의에는 정 행장을 비롯해 임·본부장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정 행장은 올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성장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방식은 ▲영업 방식의 변화 ▲

미래를 위한 변화 ▲현장의 변화 세 가지다.

그는 "변화의 방향을 잘 읽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업가치 밸류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자산 성장 중심의 영업에 더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행장은 "변화의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믿을 수 있는 신환을 위해 노력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전략과 제도도 변화하는 환경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면서도 유연함을 갖춘 '강유점전'의 자세로 강한 신한은행의 저력을 발휘함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디지털사업, 현장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플랫폼 Biz 중심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널 부문과 영업 지원 부문을 개편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완성차업계, 수출·내수 '희비'

친환경차·신흥시장 드라이브

경기침체 직격... 내수판매 부진
수출물량 증가로 실적 방어 성공
美·인도 등 글로벌 현지화 집중



국내 완성차 로고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에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수출 물량 증가로 실적은 방어한 모습이다.

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내수 경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판매 목표(744만대)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지엠과 KG모빌리티(KGM)는 내수 시장에서 최악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신차 효과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7.5% 감소한 70만5000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기아도 4.2% 줄어든 54만대 판매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수출 상승에 힘입어 전체 판매량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기아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308만9457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줄어든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3년보다 1% 많은 254만3361대의 해외 판매량으로 극복했다. 기아는 올해 연간 글로벌 판매 목표 321만6000대를 제시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기아는 위기 돌파를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

차와 기아는 조지아 공장 가동을 통한 북미 친환경차 시장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현지화 전략으로 신흥시장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목적기반차(PBV)인 'PV5'로 자동차 업계 혁신을 주도하면서 인도 및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소형 SUV '시로스'와 픽업트럭 타스만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내 중점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와 수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한국지엠과 KGM은 내수 시장에서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감소한 2만4824대를, KGM은 25.7% 줄어든 4만7000대를 각각 판매했다. 한국지엠의 지난해 내수 판매량은 1982년(2만2184대) 이후 최저다.

다만 한국지엠과 KGM의 수출 물량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국지엠의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7

만4735대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KGM의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만2378대를 기록했다. KGM은 2025년에도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O100' 등 신모델 출시를 통해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판매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랜 기간 판매 부진을 겪었던 르노코리아는 4년 만에 출시한 신차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로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내수 3만9816대, 수출 6만7123대로 총 10만6939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연간 내수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80.6% 늘었다.

신차 효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르노코리아는 신차 출시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올해 내수 시장은 그랑 콜레오스 판매에 주력하면서 아르카나로 수출물량 확대에 나선다. 여기에 그랑 콜레오스의 해외 수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르노코리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내년 준중형 전기 SUV인 르노 세니 E-테크(Tech)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올해는 침체된 내수 시장 대응으로 판매 물량을 늘려가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SK에너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부두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선박에 선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국내 최초 SAF 유럽 수출

(지속가능항공유)

연산 10만 수준 대량 생산체제 주요 연료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제품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SK에너지는 연산 10만톤 수준의 SAF 등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으로써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유럽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수출했다.

SK에너지는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동시처리방식) 생산방식으로 폐식용유 및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든 SAF를 유럽으로 수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유럽 각국은 올해 1월부터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배합해 써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실행에 들어갔다. 현재 SAF 사용이 의무화된 글로벌 시장은 유럽이 유일하다.

SAF 대량 생산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춘 SK에너지는 유럽연합(EU)이 SAF 사용 의무화에 동참하자마자 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앞서 SK에너지는 지난 2024년 9월 코프로세싱 방식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SAF 상업생산에 착수한 바 있다. 코프로세싱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과

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제품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SK에너지는 연산 10만톤 수준의 SAF 등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으로써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환경과학기술원 연구개발(R&D) 및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울산CLX) 엔지니어링 역량을 토대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상업생산 라인을 가동한 것이 수출에 주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폐지된 기반 원료기업에 투자했고, SK에너지가 이번에 SAF 생산 및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료 수급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SK에너지는 올 상반기 국내 공급을 비롯해 글로벌 SAF 시장을 지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LS, '에식스솔루션즈' 2억달러 투자 유치

프리 IPO 성공... 연내 상장 추진
미래에셋-KCGI컨소, 20% 지분 취득

LS그룹 지주사인(주)LS의 미국 자회사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LS는 미국 자회사인 에식스(ESSEX) 솔루션즈가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미래에셋-KCGI 컨소시엄이 제3차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자금액은 2억 달러(약 2900억원)다.

이번 투자로 미래에셋-KCGI컨소

시엄은 약 2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됐으며 이를 환산하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시가총액은 약 10억 달러(약 1조4500억원)에 달한다.

LS가 직접 주관한 에식스솔루션즈의 프리 IPO에는 베인캐피탈, 골드만삭스, IMM 등 주요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S는 올해 초까지 주관사 선정 작업을 마친 뒤, 연내 본격적인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코스피 상장을 계획했으나 미국 현지 투자은행(IB)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나스닥 상장도 검토 중이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세계 1위의 권선 기업이다. 주력 제품은 '전기차·하이브

리드차용 특수 권선'과 '대용량 변압기 용 특수 권선' 등이다. 권선은 변압기나 모터 등 전자장치에 감는 피복 구리선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 권선 제품은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등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향후 5년 내 북미 시장 전기자동차 권선 점유율을 70%, 유럽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LS 관계자는 "에식스솔루션즈가 대규모 프리 IPO에 성공하면서 시장으로부터 미래 사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통해 권선 업계 선두주자 위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포차코 키즈폰' 사전 판매

갤럭시 A16, 포차코 케이스 등 제공

KT는 산리오 인기 캐릭터 '포차코' 테마를 적용한 스마트폰 '포차코 키즈폰'을 KT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사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10일부터 전국 KT 대리점에서 구매

할 수 있다.

포차코키즈폰은 초등학교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IP54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탑재했다. '라이트그린' 1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구매 시 삼성전자의 갤럭시 A16 LTE 단말기와 그림북, 포차코 케이스 등이 제공

된다. 가격은 34만9800원이다.

키즈폰을 사용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고객은 음성과 문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니어 전용 요금제 2종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10만원(스페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자녀가 주니어 전용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우리아이할인'을 통해 월 88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에코프로 "1분기 내 中 GEM 통합법인 설립"

R&D 아웃소싱 강화 등 중점과제 선정

에코프로가 캐즘(전기차 일시 수요 정체를 의미)을 돌파하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선언하면서 2025년의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지난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에코프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이동채 창업주는 "대의 여건은 심상치 않고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임직원들이 일심단결하고 환골탈태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모두 공정의 에너지로 새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시로 더 짧고 강력하게”... 플랫폼 업계, 숏폼 콘텐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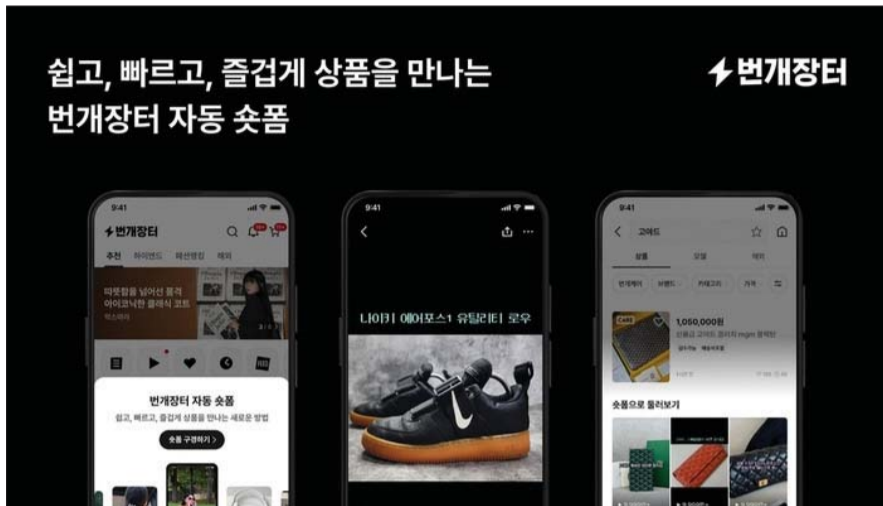
숏폼, 스마트폰 선호 콘텐츠 1위 네이버 등 플랫폼社 최적화 속도 AI 기술 접목해 작업 효율성 높여 개인화 콘텐츠로 소비자 만족도 ↑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숏폼(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2025년 신년을 맞아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숏폼 콘텐츠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표한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은 ‘숏폼’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주요 콘텐츠로는 41.8%가 숏폼을 선택했으며, OTT(39.4%), 실시간 스트리밍(26.2%) 등이 뒤를 이었다.

숏폼 콘텐츠의 시장 성장 전망도 밝다. 마켓리서치뷰처에 따르면, 숏폼 플



번개장터는 지난달 20일 시를 활용해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번개장터

랫폼 시장 규모는 2023년 266억 달러에서 2032년 2895억2000만 달러로 연평균 30.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주요 플랫폼들은 숏폼 콘텐츠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버전에도 숏폼 콘텐츠를 추가하며 플랫폼 전반에서 숏폼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의 숏폼 플랫폼 ‘클립’은 지난 12월 기준, 재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했으며, 클립 채널 수는 3배, 콘텐츠 생산량은 5배 이상 늘었다.

네이버는 2025년에도 숏폼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클립 크리에이터 5000명을 선발해 다양한 주제의 숏폼을 제작하고, 총 70억원 규모의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매월

10건 이상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클립 크리에이터에게 기본 활동비와 미션 연속 완료 시 보너스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AI 헬릭스 쇼츠’를 통해 웹툰과 웹소설의 줄거리를 AI로 요약해 숏폼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를 짧고 간결하게 변환해 사용자가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송근욱카카오엔터 AI응용기술개발팀 백엔드 엔지니어는 “지난달 카카오 페이지 홈 화면에 ‘헬릭스 쇼츠’를 도입한 이후, 해당 서비스가 노출된 영역에서 작품을 열람하고 구매하는 비율이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작 시간이 감소하면서 생산 가능한 쇼츠 생산량이 크게 늘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토종 OTT 플랫폼 ‘티빙’도 지난 12월 초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숏폼 서비스 ‘쇼츠’를 출시했다. OTT 앱 내에서 숏폼과 롱폼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시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기존 OTT의 장점과 숏폼의 트렌드를 결합했다는 게 특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최근 숏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2023년 11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1년 만에 일평균 업로드 수 60배, 시청 수 24배 증가라는 성장을 기록했다.

번개장터는 지난달 20일 AI를 활용해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판매자가 상품 이미지와 설명을 작성하면 번개장터의 자체 AI가 이를 분석해 상품 정보를 담은 최소 5초에서 최대 60초 사이의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

업계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과 소비자 참여형 콘텐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전문가는 “2025년에는 AI가 생성한 숏폼 콘텐츠와 인간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이 시너지를 이루는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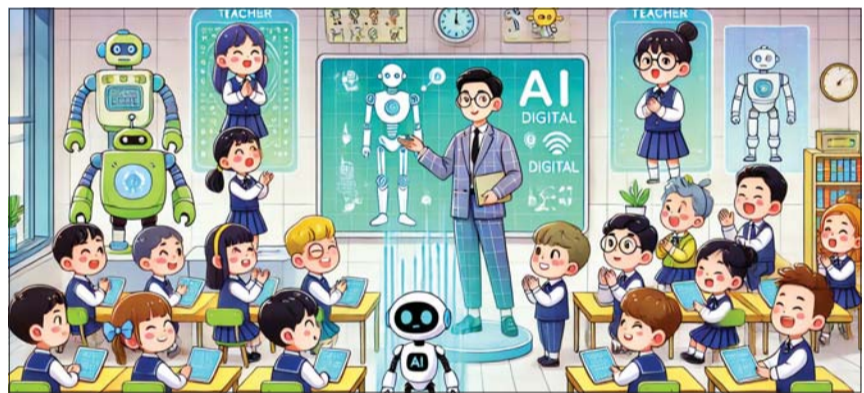
“맞춤형 학습·교육혁신 기회” vs “기술 과의존·교육본질 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선생님

맞춤학습으로 교육격차 해소 기대 디지털 역량 강화, 미래 준비 도구 스마트폰 중독·과의존 등 우려도

지난달 11일(현지시간) SNS에서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 장애를 두고 괴소문이 돌았다. 과제와 시험에 챗GPT를 적극 활용하던 미국의 대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맞아 일제히 접속하면서 트래픽 과다로 서버가 멈췄다는 소문이였다. 실제로는 10일 영상제작 AI ‘소라 터보(SORA Turbo)’가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 후 이용자가 몰리면서 일어난 소동이었다. 이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챗GPT 등 AI를 활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5일(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곧 인제가 갖춰야 하는 필수 능력인 시대지만, 청소년의 학습과



청소년의 학습에 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는 가운데, 전자기기 과의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수준별 학습 및 미래 세대 역량 성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DALL-E 이미지

AI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학습과 AI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논쟁은 AI 디지털 교과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

한하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 교과서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I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일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도 장단점과 학습효과에 대한 논의가

첨여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가 유초중등교원 57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도움이 된다’ 응답한 교원은 37.5%,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원은 33.1%로 나타났다.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 것은 ‘학습에 있어 기술에 대한 과의존을 유발한다(33.5%)’였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결과는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242개 일반고 수학·영어·과학·정보 교사 중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있는 교사 405명 중 ‘학습참여도 제고’에도 92.1%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맞춤형 학습 지원’에는 90.6%가 동의했다.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90.4%)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인 유모씨(43)는 “지금 초등학생들의 스마트 의존도는 밖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저학년은 울고 떼쓰고, 고학년은 화내고 욕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태블릿PC를 이용한 교육은 전자기기 의존도를 더 키우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중등교사 정은지(38)씨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아무리 교사가 신경쓰더라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수업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낙오되기 마련인데 AI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리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IT업계에서조차 의견은 나뉜다.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및 AI에 대한 과의존에 대한 걱정과 AI 네이티브(AI Native)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 맞춘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대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호주, 현실감 강조 폭력적 장면 금지

글로벌 게임정책·법제연구 보고서 싱가포르 등 5개국 환경 심층 분석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책, 법률, 문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게임 시장으로 급성장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

흥원과 함께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의 법적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규제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계

발청이 게임산업을 담당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디스크/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하거나 배포되는 물리적 콘솔에 게임이 사전 설치된 경우, 대중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전시, 아케이드 스타일 등)에는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어 게임 내 논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브라질은 연방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와 청소년 보호에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 내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의 경우 온라인게임 담당 지정 주무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 담당 주무부처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을 전담하거나 규제하는 별도 기관은 없다. 대체로운 종교와 전통을 고려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 콘텐츠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게임산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2025

謹 賀 新 年



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건강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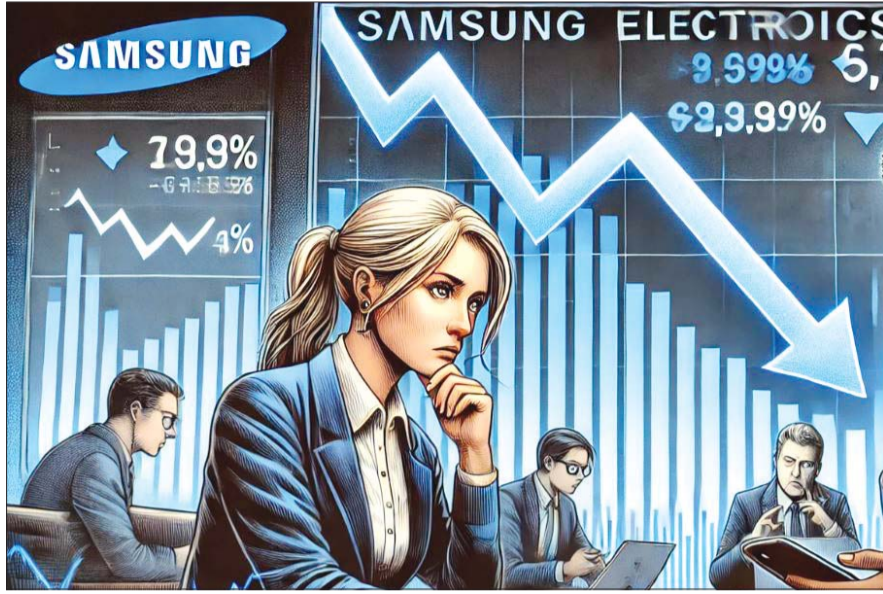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잇따라... 저가매수 평가는 '여전'

평균 목표주가 약 7만7077원
13개 증권사, IT 수요 침체 영향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낮은 밸류에이션... 매수 의견 유지

새해 코스피 지수가 반등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연일 하향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가매수' 구간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한 증권사는 총 13개로, 이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주가는 약 7만7077원에 그쳤다. 13개 증권사의 하향 전 삼성전자 목표주가 평균인 8만3769원과 비교해서 8% 가까이 낮춘 것이다.

증권사들 중 목표주가를 가장 크게 내린 곳은 한화투자증권으로 9만원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에 투자를 고민하는 외국인 이미지.

서 7만3000원으로 18.89% 낮췄다. 이미 7만2000원으로 목표주가를 낮게 잡았던 iM증권이 7만1000원으로 목표주가를 재설정하면서 13개 증권사 중 가장 낮은 변동률(-1.39%)을 보였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8만3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7% 내린 한국투자증권은 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증권가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이라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

PC 등 IT 수요 침체 원인으로 꼽았다. 채민숙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IT 하드웨어 세트 수요는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초중반 퍼센티지(%)의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망하며 "4분기 매출액은 74조5000억원, 영업이익 7조3000억원으로 컨센서스 매출액(77조9000억원)과 영업이익(8조9000억원)을 각각 4%, 18%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개 증권사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 시기도 올 하반기로 지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와중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대내외적 수급 유입 요인은 충분하다며 '저가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실제로 지난 3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351억원

순매수했으며 삼성전자 주가도 전날보다 1000원(1.87%) 오른 5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을 12조922억원어치 담았음에도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주가를 매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개인투자자 매수 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다.

목표주가 '유지' 의견을 낸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3% 하향 조정한 7조7000억원을 제시하면서도 "글로벌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다"며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PBR 1배가 자사주 매입까지 결정하는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밸류에이션 콜(저가매수)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부진... "고환율이 주요 요인"

10대 증권사 지난해 1~3분기 거래이익
11조1836억... 전년비 11.01% 줄어
정치적 불확실성에 고환율 지속 전망

고환율 여파로 지난해 3분기 국내 증권사들의 외환거래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10대 증권사의 외환거래 이익은 11조1836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5679억원) 대비 11.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환거래 손실은 11조2213억원으로 11.33% 줄었으나,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 전체 외환거래에서 3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

은 외환거래 이익 3조1782억원을 올렸으나, 외환거래 손실이 3조3049억원에 달해 순손익에서 12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112억원)보다 손실 폭이 확대된 규모다. 미래에셋증권도 외환거래 이익 1조1429억원, 손실 1조1800억원을 기록하며 -371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332억원), 키움증권(-295억원) 등 다수의 증권사가 외환거래에서 손실을 면치 못했다.

일부 증권사는 외환거래에서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하나증권은 4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전년 동기(519억원) 대비 90.75% 급감했다. NH투자증권은 781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 40.23% 감소했다. KB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33.05%, 14.5% 줄었다.

메리츠증권만 4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27억원)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증권사 외환거래 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거래 이익에는 보유 채권, 주식, 외환(FX) 거래, 환산 손익, 매매 이익 등 외환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손실 항목에는 대차 거래나 외화 차입 채권의 평가 손실 등이 반영된다. 증권사들의 운용 상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환율 상승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359.3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43원 높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환거래 손실은 대부분 포지션 변동이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며, 환율 상승은 보유 채권 평가 손실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증권사들의 운용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환율 변동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초에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환율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증권사들의 외환거래 실적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환율 변동성 확대가 증권사 외환거래 손익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며 "증권사는 은행보다 외환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고 해외 자산 비중도 낮아 변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 지난해 결산감독 집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회계기준(IFRS17)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회계가 '2024년 결산' 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주요 이슈별 검토 결과와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IFRS17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감독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해지율 합리화, 공시·외부검증 강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 등과 6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이슈는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 회계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과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FRS17 주요 이슈별 검토 결과 ▲부채평가시장대손해조사비 반영 ▲CSM 상각률 산출기준 '예상치' → '당기중' 실제 제공한 보장단위로 변경 ▲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 처리 ▲갱신형 보험 부채평가 대상기간 '갱신일' → '갱신가능한 최대단기'로 변경 등의 변화를 이뤄냈다.

/허정윤 기자

6.7兆 규모 해상운송 계약 체결에 '주목'

metro 관심종목

현대글로벌비스

현대차·기아와 장기계약 체결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 15% ↑

증권사들이 현대차, 기아와의 해상운송 계약을 각각 갱신한 데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현대글로벌비스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3일 전거래일 대비 0.52% 상승한 1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15% 급등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현대차와 기아와의 5년간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완성차 해상운송 장

기계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계약은 기존의 3년 단위 계약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계약 금액 또한 대폭 증가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장기운송계약 갱신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과격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며 "연평균 환산 시 약 1조3400억원 규모로, 이는 2021년에 체결한 3년간 1조9000억원(연평균 6550억원)과 비교해 연간 계약금액이 105% 증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잇달아 상향했다. 대신증권은 현대글로벌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다. 하나증권 역시 기존 15만원에서 16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관희 기자

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개발

오늘부터 연계 테스트 시행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기관투자자와 연계테스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13일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7월부터 NSDS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6일부터 기관투자자가 구축한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테스트를 시행한다.

NSDS란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며 전달 받은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일부

터는 해당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도가능잔고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기관 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연계테스트는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30여개사(공매도 거래비중 90% 이상 점유)가 참여할 예정이다. 2월까지 NSDS와의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이후 연계테스트를 완수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한다.

거래소는 NSDS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해 NSDS 개발상황 공유,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안내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게임 종사자 '크런치 모드' 경험 ↓ 주 최대 56시간, 평균 44시간 노동

콘진원, 국내 1510명 대상 조사
종사자 희망노동시간 평균 40시간
주 52시간제 유연근무 59% '긍정'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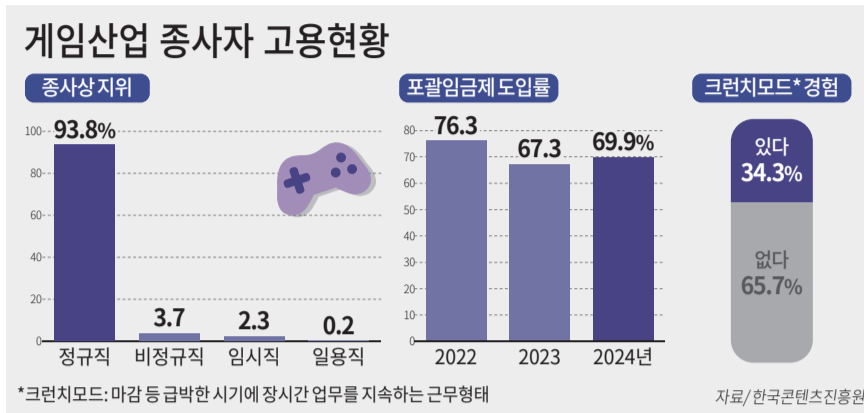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 2종은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글로벌 게임산업의 정책·법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게임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및 보상 체계 개선 필요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감을 앞두고 급박한 시기에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일명 '크런치 모드' 경험 비율이 전년 대비 3.9%p 감소한 34.3%로 나타났다.

특히 크런치 시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6.1시간으로 전년 대비 4.5시간 증가했으며, 전체 종사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종사자



들이 희망하는 40.3시간과 차이를 보였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5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행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구축(45.0%)'과 '포괄임금제 폐지(42.9)'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69.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선 확률형 아이템 규제·이용자 보호 강화 추세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싱가포르·대만·브라질·호주·인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표준약관 ▲등급분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등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주의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와 브라질은 정보통신미디어 개발청(IMDA), 연방정부 문화부 등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 규제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과 호주, 인도는 게임산업 전담 기관 없이 소비자 분쟁, 공정거래와 같은 분야별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 대만은 2023년부터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주는 올해 9월 22일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 대해 M등급(성인 권장)을 적용했다. 브라질은 판매 규제가 없지만, 2019년 확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과 2022년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코웨이,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 저감 나서

코티티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
공기청정기 미래기술 확보 등 추진

코웨이가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과 공기청정기 기술력 확보를 위해 나선다.

5일 코웨이에 따르면 KOTITI시험연구원과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 소비재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품질검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웨이는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국내의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연구 현황 관련 정보의 교류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 기술 관련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 ▲공기청정기 미래 기술 확보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장(왼쪽)과 최인두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기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9층에 문을 연 N32 매장.

비건 매트리스 'N32' 롯데백 본점에 오픈

N32 폼 매트리스 등 전 라인업 준비

아이슬란드에서 온 하이엔드 비건 매트리스 'N32'가 롯데백화점 본점에 매장을 열었다.

5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9층에 문을 연 N32의 매장은 팝업 형식으로, 내부는 기존 침대 매장에서 탈피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푸르른 자연을 형상화한 각종 조형물과 카펫, 오브제 등으로 친 환경 연출을 강화했다.

N32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N32 폼 매트리스 ▲N32 스프링 매트리스 ▲N32 레귤러 토퍼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II 등 N32 전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N32 폼 매트리스는 시중에 판매 중인 기존 폼 매트리스들의 고질적인 단점인 열감과 쉰림 현상을 개선했다. 액티브 리프레시 폼(AR폼)으로 통기성을 강화했고 매트리스 최상단에 천연 소재의 식물성 린넨 자가드 원단을 더함으로써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N32는 전 제품의 원단과 패딩에 '아이슬란드 씨셀'을 사용한다. 아이슬란드 청정지역의 유기농 해조류와 식이 섬유인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이 소재는 생분해가 가능해 자연으로 환원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N32는 롯데백화점 본점 오픈을 기념해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풍성한 사은품도 준비했다.

/김승호 기자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신임회장 취임

라인업 확대 등 4대 경영비전 제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 목표"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부회장이 신임 회장(사진)으로 취임했다.

조용준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강화를 통한 토털헬스케어 선도기업 도약 ▲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R&D 역량 강화 및 전략적 투자 확대 ▲소통과 혁신 중심의 기업문화 계승 등 '4대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5일 동구바이오제약에 따르면 지난 3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조용준 회장



은 1991년 입사해 200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다.

이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취임 당시 300억원대였던 매출(별도 기준)이 지난 2023년에 2149억원으로 늘며 7배 이상 성장하도록 주도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피부과 처방 1위를 달성하며 업계 선도해왔다. 2014년에는 회사명을 동구바이오제약으로 바꿔 바이오 분야 도전도 본격화했다.

조 회장은 창업주이자 선대 회장인 고 조동섭 회장의 '그러나 된다'는 경영철학을 계승함과 동시에 모친인 이

경옥 전 회장의 소통 중심 경영을 통해 회사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있다.

조용준 회장은 "55년 역사의 도전과 혁신을 이어받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과 메디컬푸드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예방에서 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털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매출 확대 기여

소진공, 2023 점포경영 실태조사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실제로 전통시장·상점가의 고객 수를 늘리고 매출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발간한 '2023년 기준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유통

균 사용 고객 수는 25.1명으로 나타났다. 골목형상점가에서는 13.1명, 상점가에서는 14.9명으로 전통시장의 유통 평균 이용 고객 수가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모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구매한 평균 객단가는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평균 객단가는 2022년 3만4080원

에서 2023년 3만6240원으로 216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점가 내 점포에서는 평균 객단가가 300원 증가한 3만5310을 기록했다.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9408원 증가한 9만4430원의 객단가를 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온누리상품권이 매출 증가와 고객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시장 전체 매출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2%로 조사됐다.

/김승호 기자

중소상품·농축산물 구매시 적립금 지급

공영홈쇼핑 '새해 적립이오' 이벤트

공영홈쇼핑이 새해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2회 이상 구매 시 적립금을 증정하는 '2025 새해 적립이오' 이벤트를 펼친다. 행사 기간 방송 상품을 두 번 이상 구매한 고객 중 결제액별로 차등 적립금이 지급된다. 적립금은 내달 19일 일괄 지급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60일이다.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앱에서는

'2025 새해 고민을 말해봐' 이벤트가 펼쳐진다. 오는 12일까지 신년 고민 해답을 확인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아이디(ID)당 1회만 발급한다.

해당 이벤트에 하루 한 번씩 참여해 총 7회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적립금을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 새로 가입했거나 최근 3개월간 구매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웰컴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기업 수·고용 등 외형적 ‘성장’ 영업익·투자 등 질적성장 ‘미흡’

2023 중견기업 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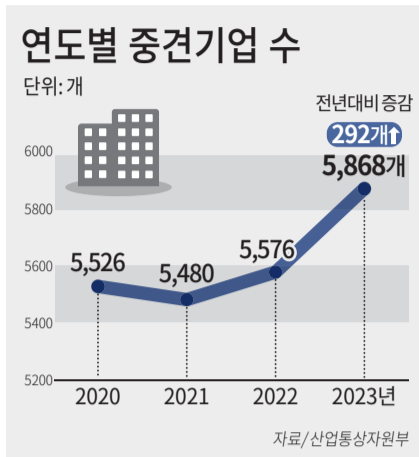
산업부, 매출 1조 기업 비중 감소
기업수 총 5868개로 292개 증가
영업익 47.5억, 전년비 10.5% ↓

국내 중견기업이 기업 수와 고용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이 감소했고,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868개사로 전년(2022년) 대비 292개사(5.2%)가 증가했다.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 744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1036개사가 중견기업에 진입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000명(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명(5.8%), 비제조업은 102만5000명으로 7만9000명(8.4%) 늘었다.



매출액은 98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9000억원(2.4%)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15.7% ↑), 식음료(7.7% ↑), 바이오헬스(5.1% ↑)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비제조업 분야는 전문과학기술(13.4% ↑), 정보통신(9.3% ↑)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48개사로 전년 대비 5개사(비중 2.7% → 2.5%) 줄었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5058개사로 전년 대비 290개사(비중 85.5% → 86.2%) 증가했다.

자산 규모는 12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6000억원(11.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5000억원(-18.1%)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2022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파악됐다.

총 투자금액은 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20.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가 2.1%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기저효과에 따라 27.1% 감소했다.

중견기업 18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조세(36.6%), 금융(34.3%), 인력(16.9%), 기술개발(4.0%)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 지표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중소기업 회귀의향이 있는 기업 증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및 규제 발굴·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1000만원 용자

근로복지공단, 자녀 1인당 500만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

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고용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나서

노동 포털 온라인·전화신고 창구 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본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에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김대환 기자

‘방역 미흡’ 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차량 소독 미실시 등 미흡사항 확인
가축평가액 20% 금액 기본적 감액

가축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소독 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깎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

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한다. 또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깎는다.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는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은 가축평가액의 10~60%이다. 또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은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15곳 중 1곳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곳은 다수의 위반이 확인돼, 당국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아울러,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철새 등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이후 총 24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장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 5일 밝혔다.

우선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난해 설의 경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위), 돼지고기(2위), 두부류(3위), 소고기(4위)였다.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집단>

/자료=공정위

순위	집단명	지급금액	순위	집단명	지급금액
1	삼성	12.29조원	6	씨제이	3.70조원
2	현대자동차	11.37조원	7	포스코	3.62조원
3	HD현대	6.16조원	8	중흥건설	3.26조원
4	엘지	4.92조원	9	지에스	2.99조원
5	한화	3.92조원	10	에스케이	2.97조원

하도급대금 87조 지급... 삼성 12.3조 최대

공정위, 2024 상반기 결제조건 공시
한국엔컴퍼니·이랜드 등 ‘특장 지급’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인 30일 이내 지급됐다. 반면, 한국엔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대금을 특장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해 이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수단,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

해야 한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 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엠디앤, 크래프트,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 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폭설로 수도권·강원 등 교통마비... 위기경보 '주의' 상황

항공기 18편·선박 5척 운행 취소
국립공원 4곳, 131개소 출입 막혀
오늘까지 최대 10cm 적설 예상
중대본 중심 안전관리 만전 기할 것



새해 첫 폭설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고 하늘길과 뱃길마저 끊겼다. /뉴시스

새해 첫 폭설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고 하늘길과 뱃길마저 끊겼다. 북한산 등 일부 국립공원의 출입도 통제됐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많은 눈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사전 결항한 15편 포함, 항공기 18편의 운행이 취소됐다. 무안 9편, 제주 3편, 김해 2편, 청주 2편, 김포 1편, 원주 1편 등이다. 또, 백령-인천, 군산-여흥 등 5개 항로 선박 5척의 발이 묶였다.

북한산과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 등 4개 공원에서는 131개소의 출입이 막혔다. 일부 북한산로 구간 도로도 통제됐다.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안부는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시의 경우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한채 제설작업에 인력이 총 동원됐다.

1단계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시,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인력 5245명과 장비 1493대를 제설작업에 투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을 통해 "대로뿐 아니라 언덕길 등 취약 결빙 구간도 꼼꼼히 챙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밤 10시부터 대설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오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을 때는 제설작업에 인력 1723명과 장비 1124대가 투입됐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전 지역에 제설작업을 살포하고 보도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cm, 서울 3~8cm, 인천 1~5cm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특히 7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돼 교통과 보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자체는 적설취약시설을 지속 예찰하면서 대설 상황에 따라 선제적 주민 대피 및 위험지역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 적설로 인한 붕괴·전도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겨울철 전지훈련 최적지 '인기'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와 전문실업팀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지훈련을 유치해 축구, 야구, 유도 등 7개 종목, 100여개 팀, 연인원 2만1000여 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사계절 잔디구장인 팔마주경기장, 유소년축구장 등 7개의 축구장과 2개의 야구장, 18면의 테니스장, 9면의 소프트테니스장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온화한 겨울 기온 덕분에 선수들이 부상 위험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수도권에서 3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하고, 경기장 주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겨울철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완도군 고금 덕암산에 생태공원 조성

전남 완도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고금 덕암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사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고금 덕암산 일대에 숲속 무대, 유아 생태 놀이원, 오색 초화원, 숲속 오두막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새벽, 저녁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목포시(박홍률 시장)가 시청 중앙현관에서 전직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자들에게 감사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목포시

목포시, 2년째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달성

지난해 6억9400만원 모금
지역 답례품 95개 제품 제공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연속 목표 모금액인 5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2024년도 6억94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모금액 5억 6700만원 대비 22%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이 같은 성과는 목포시민과 전 직원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반으로 홍보대사가 되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첫 기금사업으로 시행한 '보

호종료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기부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더불어 답례품 분야에서는 목포의 대표적인 지역 답례품인 홍어와 김,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밥통존데기를 비롯한 60개 업체, 95개 제품을 제공하며 모금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더욱 집중하여 2025년에는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 ▲공동생활 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등의 5개 기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시, 대규모 공원 조성에 5186억 투자

환호·학산·상생공원... 총 207.3만㎡

포항시가 대규모 공원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과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높인다. 시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3개 공원(환호·학산·상생공원)의 터 207만3425㎡에 총 5186억원을 들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 중이다. 지난 2022년 5월에 환호공원을, 8월에 상생공원을, 11월에 학산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환호·두호·장량동 일대에 조성되는 환호공원은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애초 스페이스워크 남쪽 56만㎡ 터에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77만㎡를 추가해 133만㎡의 대규모 공원을 만들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식물원, 중앙 공원, 책 읽는 숲 등이 있다.

식물원은 다양한 수종의 수목들과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국내 최대 규모



포항시가 '환호·학산·상생 공원'의 터 207만3425㎡에 5186억 투입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의 바오밥나무, 흑관수 등 희귀종을 사계절 즐길 수 있다.

학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학산공원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36만㎡의 터에 너른 마당, 거울 정원, 사계절 정원 등으로 꾸미고 있다.

대이동 일원에 조성하는 상생공원은 오는 202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95만㎡ 터에 국민체육센터, 워터·갤러리 프라자 등 다양한 체육 공간을 마련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거창군, 상하수도 요금 연차적 인상

5년간 年 상수도 10%, 하수도 15% ↑

경남 거창군은 오는 15일 지방상하수도 사용분부터 매년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15%를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거창군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이유로 연이은 손실과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들었다. 이번 인상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군에 따르면 상하수도 수도물 생산, 각종 시설물 운영·개보수, 노후 상수관망 교체,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필수 사업을 위한 지출에 비해 요금 수입

이 턱없이 낮아 매년 당기 순 손실액이 약 60억원에 달한다.

특히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34%(전국 평균 73%), 하수도는 5.5%(전국 평균 4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1t당 2240원이지만 공급 요금은 761원으로 경남도 내 13개 상수도 공기업 중 12위에 해당하며, 하수도의 경우 1t당 처리 원가는 3741원이지만 처리 요금은 207원에 불과해 도내 11개 하수도 공기업 중 10위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군 "걷기 편한 땅끝마을 오세요"

무장애 걷기길 '땅끝 꼬길랜드' 조성

전남 해남의 땅끝마을에서 땅끝탑까지 계단이나 경사지 없이 누구나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이 조성됐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무장애 걷기길 '땅끝 꼬길랜드' 조성이 4개월 여간의 공사 끝에 최근 완료했다.

땅끝관광지는 조성된지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땅끝탑까지 가는

일부 구간은 계단과 경사지로 조성돼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롭게 조성된 땅끝 꼬길랜드는 땅끝 모노레일 승강장에서 출발해 땅끝탑까지 이르는 길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350여 m 산책로를 보행이 편하게 정비하고 도중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와 포토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격터를 설치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안동시 재활용 회수율 '전국 최고'

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전국 최고의 재활용 회수율(90% 이상)을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선별한 재활용품 2700t을 판매해 6억3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재활용품 매각 수익을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류 4억4000만원, 잉곳(스티로폼 덩이) 9300만원, 캔·고철류 4300만원 기타(병류, 파지) 5400만원 순이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새해부터 먹거리·생필품 가격 올라... 소비자 한숨 커진다

환율 급등 '도미노 인상' 우려

커피빈, 카페모카 등 200원 인상
오리온·해태제과도 과자 가격 ↑
LG생건 '오휘' 최대 6000원 올려
CU '특템 시리즈' 품목 확대 등
편의점 업계, 가성비 상품 선보여



CU의 특템 시리즈가 작년 한해에만 3000만 개가 넘게 팔렸다. 모델이 CU의 특템 시리즈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BGF리테일



이마트24가 상상의 끝 프로젝트로 선보이는 초저가상품. /이마트24

새해부터 커피, 과자, 치킨, 화장품 등 제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유통업계 전방위로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와 원두 가격 상승 여파로 초콜릿과 커피가 포함된 제품 가격이 올랐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카페 모카와 더블 초콜릿 등 음료 메뉴를 200원 인상했다.

초콜릿이 포함된 일부 과자 제조사들도 가격을 인상했다. 오리온과 해태제과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인상분이 반영됐다.

오리온 초코송이는 200원 올랐으며, 해태제과의 흠뻑롤, 포키 등 과자 가격도 평균 8.6% 인상됐다. 추가로 가격 인상을 요청한 곳은 없으나 1월 말 가격 추이에 따라 가격 인상이 뒤따를 수도 있다.

푸라닭치킨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 프랜비는 지난해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바질페스타와 제너럴 핫 치킨, 파블로 치킨을 제외한 치킨 메뉴 10종 가격을 최대 1000원 인상했다.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와 데미소다, 나랑드사이다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0원 올렸다.

화장품과도 가격이 올랐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오휘'의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6000원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립스틱·립밤 세트 가격은 8만5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세립 가격도 최대 5000원 올랐다. LG생활건강의 또 다른 브랜드인 '비온드'와 '숨'도 주요 제품 가격을 각각 1000~5000원씩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 에뛰드는 새도우 가격을 500원 인상했다. 미샤, 어퓨 등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1일부터 새도우와 립펜슬, 리무버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그래도 장바구니 부담이 큰 상황에서 환율까지 불안정해 올해도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올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식품사는 환율 상승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장기화하면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재료 단가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목표 수익, 예상 영업이익을 하향하거나 투자를 줄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고물가에 따른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근거리·가성비를 앞세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편의점 등 유통 채널로 소비자들 몰릴 전망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더 싸게 소용량으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 유통 산업전망'에 따르면 SSM은 올해도 성장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도 같은 이유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기존 상품 외 카테고리를 넓히고, '특화 매장'을 꾸려 테스트보드로 활용하는 등 타 소매업과 서비스업 매출 흡수에 주력하고 있다.

CU는 지난 2021년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 초저가 PB '특템 시리즈'가 고물가 시대에 큰 호응을 얻으며 누적 5000

만 개 판매량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CU의 특템 시리즈는 라면, 계란, 티슈, 즉석밥 등 각종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선보이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몰보다 최대 절반 가량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최근 지속된 전방위적 물가 상승에 더욱 인기가 높아지며 작년 한해에만 3000만 개가 넘게 팔렸다. 누적 1000만개 판매에 2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배 이상 그 판매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이마트24는 외식물가가 높아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 간편식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초저가 먹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마트24는 초저가상품을 선보이는 '상상의 끝' 프로젝트를 펼치며, 그 첫 번째 상품으로 김밥, 비빔밥을 이달 중 출시한다. 이와 함께 노브랜드 초저가 상품을 2025년 한 해 동안 20종 이상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전망한 물가 상승률은 1.8%이지만, 소비자 물가의 최대 변수는 원·달러 환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변동성이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환율이 지속되면 소비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G마켓, 일요일 배송 도입... 로켓배송 독주 막나

신세계그룹-CJ대한통운, 물류협업 동탄물류센터 입고 상품 우선적용

e커머스 업계의 배송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중무휴' 배송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 플랫폼 G마켓은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에 일요일 배송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스타배송'은 지난해 9월 도입된 서비스로,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상품을 배송한다. 만약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이 늦을 경우, 구매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일요일 배송 도입을 통해 앞으

로 고객들은 토요일에 주문한 G마켓과 옥션 '스타배송' 상품을 일요일에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말 배송 확대를 통해 배송 과정의 최종 단계인 일명 '라스트마일'에서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G마켓 측 설명이다.

일요일 배송은 G마켓의 동탄물류센터에 입고된 14개 제품 카테고리, 약 15만 개의 스타배송 상품에 우선 적용된다. 향후 G마켓은 올해 스타배송 서비스를 일반 3P 상품으로도 확대 적용해 일요일 배송 대상 상품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3P 상품은 G마켓에 입점한 외부 판매자가 직접 관리하고 판매하는 상품을 뜻한다.

이번 G마켓의 일요일 배송 서비스는 신세계그룹과 CJ대한통운의 물류협업을 통해 실현됐다. 특히 CJ대한통운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 7일 배송 서비스 '오네(O-NE)'가 G마켓의 스타배송 서비스 확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기반이 됐다. 신세계그룹과 CJ대한통운은 지난해 6월 물류 및 유통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G마켓과 CJ대한통운의 협력이 e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쿠팡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실제 쿠팡은 자체 물류망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주 7일 배송과 새

벽배송을 포함한 로켓배송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며 업계 1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2026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배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e커머스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택배업계 내부 지형 변화가 e커머스 시장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CJ대한통운이 e커머스 플랫폼의 물류망을 지원하면서, 기존에 자체 물류망이 없던 e커머스 업체들도 주말 배송과 새벽 배송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고객이 GS25에서 닭가슴살과 구운란 등을 구매하고 있다.

GS25 단백질 바·샐러드 등 식단관리 상품 매출 ↑

새해를 맞아 자기 관리를 목표로 세운 사람들이 늘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최근 보름간(12월 20일~1월 3일)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식단 관리 상품들의 매출이 직전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 매출 신장률은 단백질 바 32.2%, 샐러드 16.1%, 구운란 14.2%, 닭가슴살 13.7%, 단백질 음료 10.9%로 나타났다.

해당 카테고리의 상승세에는 MZ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 GS25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상품들을 구매한 고객 중 20대가 33.4%, 30대가 38.5%를 차지하며, 20~30대가 전체 구매 비중의 약 70%를 차지했다. 자기 관리에 대해 관심이 높은 MZ세대가 체중, 건강 등 자기 관리를 위해 편의점에서 간편하고 실속 있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견과 선물세트 매출 25% 증가

설 선물 사전예약기간 4주간

롯데마트가 설 선물 사전예약기간(지난 12월 12일~1월 2일) 동안 견과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3만 원 이하의 견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게 롯데마트 측 설명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매출 상승은 고품화로 인해 건강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데다, 고물가 상황이

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해 롯데마트는 2024년 설 선물 예약 대비 견과 선물세트 품목 수를 50% 늘리고, 세트 물량도 30% 확대해 약 12만 개를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 '매일견과 하루한줌 80봉', '더 고소한 마카다미아 매일견과' 등이 준비됐다. 각 상품은 롯데 멤버십 포인트인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2만 9900원에 제공된다. /안재선 기자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연매출 1000억 달성

8년 연속 연평균 성장률 38%

신세계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오프프라이스 스토어 '신세계 팩토리스토어'가 지난해 연간 거래액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이 브랜드의 재고 상품을 매입해 직접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오프프라이스 매장이다. 정상 유통 채널에서 소진되지 않은 재고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층을 주요 타겟으로 한다.

이번 거래액 성장은 지난 2017년 8월 스타필드 고양점 개장 이후 8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라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연간 거래액은 오픈 첫 해 75억 원에서 시작해, 8년 연속 연평균 성장률 38%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성장이 상권 및 고객 특성에 맞춘 브랜드 구성 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CDMO 확장·對中 규제 강화... 美 활동 노젓는 제약바이오

트럼프 2기 약가 인하 정책으로
美 내 제조기업 특혜 강화 상황

삼성바이오 미주법인 통해 영업
셀트리온 美 직접판매 구조 구축
SK바이오팜 美 선제투자 단행
유한양행 글로벌 협력 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뉴저지에 마련한 영업 사무소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혁중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들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해당 행정명령 관련 미국 제약·바이오협회의 반발 등 미국 내 법적 공방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욱 효율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한국 CDMO 기업의 미국 내 역할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려면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의무가 요구되면서 미국 내 제조 기업에 대한 특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직 독립적으로 미국 연방 정

부 조달 시장에 참가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한계점도 짚었다. 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국 내 고객사와 협력 강화, 미국 내 토종 기업이나 미국 외 유수의 제약 기업과 합작하거나 미국 내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등의 전략이 제시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의약품 시장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국내 대표 의약품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주법인을 통해 의

약품 위탁개발(CDO) 사업 및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CDO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주요 글로벌 빅파마가 위치한 뉴저지에 사무소를 열었다. 해외 파트너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교류를 활발히 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의약품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를 100% 자회사로 공개한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독자적인 직접판매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은 국내외 여러 의료 현장에서 셀트리온 기술력을 응용한 CDMO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글로벌 수요를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국내에서 CDMO 공장 건설을 본격화하고, 향후 해외 시장에서도 증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팜도 미국 시장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해 기업 입지를 넓힌다.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스코프리)’의 높은 현금 창출력을 기반

으로 후속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새로운 성장 목표로 글로벌 방사성의약품(RPT) 시장을 정조준하며 미국 원자력 발전사 테라파워와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국내 정통 제약사인 유한양행도 유한 USA를 통해 글로벌 연구센터, 바이오텍 스타트업, 제약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유한양행은 원료의약품 CDMO 사업도 지속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미국 빅파마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이익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인도 등 제약 강대국들도 똑같이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CDMO 사업을 확장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우선 K제약바이오의 성장세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외 정세에 의존하기보다 차별화된 생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K뷰티업계, 피부 관리 넘어 웰니스 소비흐름 이끈다

에이피알, 中·홍콩서 영향력 확대
올리브영, 체지방 감소 제품 매출 급증
라엘, 여성 전용 건강 제품군 확대



지난해 12월 홍콩 침사추이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 ‘허버시티’에서 에이피알은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 팝업 행사를 마쳤다. /에이피알



CJ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탄탄’을 기획했다. /CJ올리브영

‘K뷰티’가 피부 건강부터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웰빙을 중요시하는 소비 흐름을 이끌고 있다.

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홍콩 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중화권 시장에서 K뷰티 돌파구를 마련했다. 특히 브랜드 대표 제품인 뷰티 디바이스를 활용해 ‘K뷰티’를 넘어 웰니스를 위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까지 공략한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첫째 주 홍콩 애플 앱 스토어의 ‘건강 및 피트니스’ 부문에서 뷰티 디바이스와 연동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에이지알’

은 1위에 올랐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애플은 홍콩 스마트폰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해 애플 앱 스토어 1위는 홍콩 온라인 시장 내 의미있는 성과라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4년 홍콩에서 매

분기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1분기 101억원, 2분기 132억원, 3분기 165억원 등으로 매출은 증가했고,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7%, 47%, 93% 등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에이피알은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을 직접 개발

공략해 왔는데, 중국 경기 둔화에도 향후 중국 본토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리브영이 자체 브랜드인 탄탄에서 처음으로 구성한 제품군은 체지방 감소 제품으로 ▲탄탄 켈리 더블 컷 다이어트 ▲탄탄슬리밍 C3G 다이어트 ▲탄탄슬리밍 브이썬 티 등 3종이다. 이들 제품 모두 체지방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23년 기준 올리브영에서 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상품 매출은 2022년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리브영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지방 감소 분야 매출

은 70%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라엘은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성 건강의 전체 주기에 맞춘 제품군을 확장한다.

라엘은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부터 여성청결제, 청결 티슈 등 Y존 관리 제품까지 폭넓은 위생용품들을 보유했다. 이너케어 젤 질세정기, 에센셜 드립스, 여성 청결 미스트 등을 출시하기도 했다.

라엘은 지난 2022년 헬스케어 브랜드 ‘라엘 밸런스’를 공개하고 질 건강, 월경전 증후군 완화, 요로 건강 등을 관리하는 여성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내놨다. 최근에는 ‘라엘 밸런스 미오이노시톨 앤 콜린’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불규칙한 월경 주기로 고민하는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엘은 해외 시장에서는 타겟,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사에 이어 미국 최대 뷰티 전문 멀티숍 얼타뷰티 등에서 입점을 완료했다. /이청하 기자

무신사, 허위광고 브랜드 전수조사 착수

소재 혼용률 상세정보 집중 조사

무신사는 악의적 허위 광고로 고객을 기만한 의혹이 있는 브랜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5일 밝혔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 성분의 혼용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성분 정보가 잘못 기재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대표 아우터인 패딩과 코트류를 중심으로 소재 혼용률 상세 정보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소재 혼용률 상세 정보란 옷이나 패션

상품 제작 시 사용된 원단의 구성 비율을 표기한 내용을 뜻한다.

조사 대상은 ▲무신사 스토어 ▲29CM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에 입점한 브랜드 중 패딩의 오리털 충전재나 코트의 캐시미어를 상품명에 포함한 경우다. 앞으로 티셔츠 플랫폼에 신규 입점을 준비하거나 오리털 및 캐시미어 소재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는 브랜드는 전문 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다.

무신사는 정기적으로 상품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상세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문제가 반복될 경우 퇴점 조치를 포함한 삼진아웃 정책을 엄격히 적용한다.

아울러 무신사는 의심 상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유지 또는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의심 상품이 품질된 경우 최근 구매 고객에게 전액 환불 및 적립금 보상을 제공한 후 상품을 회수해 조사한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판매 중단과 리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W컨셉, 인기색상 활용 스타일링 제안

‘뉴이어 뉴바이브’ 화보 선배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제작한 화보 ‘뉴이어 뉴바이브’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뉴이어 뉴바이브’는 W컨셉이 인플루언서와 함께 오는 2025년 다가오는 봄·여름 시즌 인기 색상 스타일링을 제시하고자 제작한 화보다.

특히, 이번 화보에서는 흠빛의 갈색 톤인 브랜, 회색 달빛 색상을 표현하는 문범 그레이 등 인기 색상을 활용해 일상에서 차분하면서도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한다는 게 W

컨셉 측 설명이다.

W컨셉은 오는 13일까지 올해의 패션 아이템을 추천하는 ‘뉴이어세일’도 진행한다. 추천 브랜드관 운영과 함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콘텐츠를 다시보기 형태로 선보이는 등 행사가 준비됐다.

이밖에도 시엔느, 오어, 모한로제프란츠 등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700여 개 인기 브랜드를 소개한다.

W컨셉은 할인 쿠폰팩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상품 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 30% 할인쿠폰과 전 상품 최대 12% 할인쿠폰 등을 지급한다. /안재선 기자

Gallery **오름**
2025신년기획

태양의힘
다시한번
대한민국



태 양 의 작 가

신동권
초
대
전

1.1(수) ▶ 1.13(월) 갤러리아람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SHIN DONG KWON

dongkwon



삼성전자-농협, 김치 구독 서비스 공동 마케팅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농협과 제휴해 전국 삼성스토어에서 농협의 김치 구독 서비스를 소개하는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김치냉장고 구매를 위해 삼성스토어를 찾은 고객에게 김치 구독 서비스 '김치맛선' 내용을 소개하고, 매장 직원이 구독 가입에 도움을 주는 등 서비스 인지도 확대 및 신규 고객층 확대를 지원했다. /삼성전자



수원시-벤처기업협회,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와 벤처기업협회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벤처기업협회·회원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시



한투증권, 동진주지역아동센터 그린리모델링 지원

한국투자증권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We: green'을 통해 동진주지역아동센터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ESG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투증권은 센터 옥상에 12kW(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냉난방 기기를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외대,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심화과정' 운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주최하는 '2024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심화과정'의 주관 기관으로 오는 12월 까지 고려인 한국어교사 연수 과정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연수 기간 교사들은 교육실습, 중·고급 한국어 수업, 전문가 특강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어교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NS홈쇼핑

'윗쾌한 설 준비' 프로모션

NS홈쇼핑이 5일부터 24일까지 '윗쾌한 설 준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윗쾌한 설 준비' 프로모션에는 NS홈쇼핑 온라인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운 경품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적립금 20만원을 준다. 응모방법은 앱 푸시 수신 동의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버튼을 누르면 되고, 1일 1회 가능하다. 경품 적립금은 종료 후 해피콜 안내 예정이며, 제세공과금22%는 당점자부담으로 15일 이내 지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우리은행, 동우회 통합... 기업문화 혁신 속도낸다

임종룡 회장, 역대 은행장 설득 "계파 청산 위해 전사적 인식개선"

우리은행 전신인 옛 상업·한일은행의 퇴직직원 동우회가 양 은행 합병 26년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26주년 기념식 이후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 통합을 완성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종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 직원들의 자율적 모임이다. 1970년대에 설립된 상업, 한일 동우회



지난 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종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왼쪽부터)이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는 1999년 양 은행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운영됐다. 우리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는 출신은행 별로 각각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23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직후 '기업문화혁신TF'를 설치해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상업, 한일 양 은행의 계파 문화가 은행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계파의 상징으로 여겨진 동우회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

올랐다. 또한 1999년 합병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의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우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임 회장이 직접 역대 은행장들을 설득해 통합 추진의 속도를 높였다. 원로 은행장들도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를 되찾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후배들의 쇄신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며 퇴직 선배들도 솔선수범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계파문화 청산을 위한 전사적 인식개선을 위해 윤리규범을 손질하고, 모든 인사자료에서 출신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 임직원간 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환경부 "이달 생태관광지, 평창군 어름치 마을"

백운산 등 원시 자연 경관 자랑

환경부는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며,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 원시 자연의 경관이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마을은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돼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와 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 등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희귀종들도 다수 존재한다.



평창 어름치 마을. /환경부

박쥐를 포함한 56종의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백룡동굴은 보존을 위해 관람 인원을 1일 240명(1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활동, 칠족령 탐사(트래킹)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계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에 평창군을 방문하면 어름치 마을 외에도 돌문화체험관, 광천선굴어브벤처테마파크, 웰컴투동막골활영세트장,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한신대 이현준 진로취업팀장(왼쪽)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신대

이현준 한신대 팀장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신대학교는 진로취업팀 이현준 팀장이 지난 달 31일 고용노동부 정책지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연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우수성과를 창출한 고용노동행정 참여인력의 격려와 자긍심 고취, 성과발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준 팀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사업, 재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및 고교생 맞춤형 취업사업 선정과 운영을 통해 청년고용활성화 및 고용노동행정 발전 성과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현진 기자 ihj@

한공회, 9일 '지속가능성 인증포럼' 개최

권세원, 선우희연 교수 주제 발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오는 9일 '제15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웨비나)'을 개최한다. 5일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분석을 주제로 열린다.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와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SSA 5000 제정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종합토론

의 좌장을 맡았으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사무부 ▲권성식 한국표준협회센터장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사무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 ◆KT&G ▲총괄부부장 이상학(수석부사장) ▲국내사업부부장 황기현 ▲아태생산본부부장 장재홍 ▲SCM본부부장 정성현 ▲부동산사업담당장 이상준 ▲IT지원담당장 윤광석

부음

▲서순자씨 별세, 정성우·정재원·정승원씨 모친상, 김종만·최성수(티제이툰대포)씨 장모상=4일, 태안군보건의로원 상례원 2층 4호실, 발인=7일. 041-671-5243.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원훈련생 모집

내달 14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기술교육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시민 2106명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기술교육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시민 2106명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기술교육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시민 2106명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기술교육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시민 2106명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위해 중·남부, 동부, 북부에 3개 기술교육원(4개 캠퍼스)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술교육원 입학생 3485명 중 68.4%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시는 디지털브랜치, 에너지진단 설비, 전기 공사 등의 교육 과정 정원을 늘리고, 모집률 100%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부캠퍼스의 산

/김현정 기자 hjk10@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스시스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신탁사 상대 대금지급 청구 불가



여지운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주자가 돼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각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규정해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해' 신탁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가합55738 판결). 하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어, 신탁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은 신탁회사와 시공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자신과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도급계약의 효력이나 신탁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있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 시공사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업체는 시공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는데,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에 따른 '추심금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

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탁계약상 공사비의 80%는 자금집행순서 4순위로 규정돼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금집행순서 10순위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비의 80% 이상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하도급업체가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은 10순위로 지급돼야 할 돈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직 그보다 선순위인 대출원리금도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의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따라서 신탁회사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는 압류채권자인 하도급업체에게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 및 순서의 미도래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법무법인 바른)

2금융권, '구렁이'처럼 위기 넘겨야



김정산 (금융부)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갔다.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다. 푸른 뱀은 상처를 치유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슬기로운 변화와 시작 등을 의미한다. 뱀은 어떤 장애물이든 넘어간다. 지난해 받은 상처와 나쁜 기운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겨내야 할 시기다.

2금융권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고금리 여파와 자금시장 경색이 지난해까지 이어졌지만 이제 큰 고비는 거의 넘겼다. 평가다. 신용카드사는 올해 대규모 인사쇄신을 단행했다. 당초 임기종료 후 연임을 접했던 대표이사 자리에도 변동이 생겼다. 위기를 넘긴 만큼 본격적인 영업 확대

에 나서겠다 포석이다. 각 금융지주사는 카드사 수장에 영업통을 전면 배치했다. 카드업계 수장들이 뽑은 올해의 영업 기조는 '혁신'과 '성장'이다. '보릿고개'를 넘어간 가운데 본격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간 디지털전환(DT)을 통해 마련했던 사업 기반을 적극 활용할 때다. 지휘자의 판단이 성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굳건했던 상위권 카드사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등장한다.

반면 저축은행은 소극적인 영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평균 8.80%다. 이 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11.91%로 직전 분기 대비 1.11%포인트(p) 상승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다. 새마을금고는 회소식과 함께 신년을 시작했다. 지난해 30일 연합자산 관리(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 펀드를 조성했다. 아울러 MCI대부는 채권 매각이 순항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PF사업장 정상화에 첫발을 댄 만큼 고금리 배당금 지급 등 소비자 혜택도 제자리를 찾을 전망이다.

2금융권은 서민들을 위한 기관이란 점에서 궤를 함께한다. 2금융권이 위기에 빠지면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서민의 형편이 가장 먼저 나빠진다.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사의 카드는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린다. 반대로 2금융권의 영업개황이 호전되면 중저신용차주를 위한 중금리대출 등을 확대할 기반도 형성된다. 올해는 회복의 해다. 2금융권이 위기를 넘겨야 서민경제 한파도 함께 끝난다.

/kimsan119@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6일 (음 12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망설임이 좋은 결과. 48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60년생 우물거어서 능능 찾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72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84년생 천둥이치고 비가오니 남의 이혼문제에 관여마라.



37년생 습관은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49년생 물가에서 물 조심. 61년생 의문을 갖지 말고 신념으로 직장을 다녀라. 7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85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38년생 저력을 과시하고 명예도 얻는다. 50년생 탐구가 끝났으면 이제 일을 시작. 62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운 법. 74년생 향기에 취해서 헛돈을 쓰게 된다. 86년생 운에서는 하루로 일구려는 소심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39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조상 원망하지 말 것. 51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친다. 63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75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봐라. 87년생 외출을 삼가고 다위 관리에 힘써라.



40년생 손님이 찾아오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52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난처하다. 64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6년생 고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 88년생 만남에 조금함으로 깨지게 되니 천천히 행동.



41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커지기 마련. 53년생 반기보다 상대를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65년생 만만치 않은 돈의 현실이 슬프다. 77년생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 89년생 조상님께서 인도해주시니 안심이다.



42년생 혼자여도 괜찮으니 버티보자. 54년생 정든 친구가 멀리 있는 길을 떠난다. 66년생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을 상식선에서 풀어가 보라. 78년생 오늘의 영광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9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면 마음만 다친다.



43년생 항상 성실하니 큰 일거리가 들어온다. 55년생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좋은 일. 67년생 시간을 갈아먹는 기분. 79년생 본인이 가진 재주가 엄청난 것은 본인만의 착각인데. 91년생 집안에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발전으로 향상한다.



44년생 병도 약도 다 내 얘기 나름이다. 56년생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 68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80년생 태양은 항상 그곳에 있으니 희망을 품자. 92년생 코로나가 재습격이라니 건강 신경을 쓰자.



45년생 친구와의 거래를 만족스럽게 성사시킨다. 57년생 나의 성공은 가족의 행복이 원천이다. 69년생 과거의 밝은 내 모습을 자녀에게서 본다. 81년생 고쳐야 할 것을 내버려 둔 결과가 나타난다. 93년생 믿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겠다.



46년생 뱀피와의 거래가 순탄함. 58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70년생 슬하에 자식이 없어도 유정(有情)하게 지낼 수 있다. 82년생 한 직장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94년생 물이 넘쳐흐르면 아름다운 경치도 사라져간다.



47년생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연 이야기가 있으니. 59년생 오이밭에 가서 갓끈 메지 마라. 71년생 천물에도 순서가 있다. 83년생 변화가 없다면 그게 어디 산목숨이던가. 95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자식으로 힘드네 자신일 수.



김상회의四季 운수소관(運數所關)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할 때가 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불운이나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의도하지 않게 남과의 오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엉망이 됐을 때,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등등 종종 하게 되는 질문이자 의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운수소관이란 말을 쓴다. 모든 일이 운수에 달려서 어찌할 수 없음을 이룰 때 이 운수소관이라는 말로 살짝 위안 아닌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필자는 운수소관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순리를 알며 순응하는 것과 체념은 다르다. 인생사 자중자애하며 자세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좋은 일든 좋지 않은 일든 인생의 주인으로서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으로 본다. 겸손해야 하며 설사 불운한 일이 닦혔다 해도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는데 고난이 닦혔을 때 더욱 굳건하게 자기 신념을 키우고 인내하고 인욕하는 태도를 말한다. 우연히 어느 방송인이 인터뷰 때 했던 얘기라며 올라온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마음의 방향 전환을 한다는 내용이였다. 처음 맞은 화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더 맞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원인을 알기 위한 왜? 라는 질문까지는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을 되뇌이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만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부정적인 기운만 더해질 뿐이다. 따라서 개운의 틈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호사다마(好事多魔)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불운한 일을 당할 때는 한탄하고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라 우주가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는 것은 다 뜻이 있다고 믿으며, 받아들여야 되며 전화위복이 됨을 믿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Advertisement for 'Sudoku 365' featuring a grid of numbers and promotional text for daily puzzles.

Advertisement for 'metro' magazine,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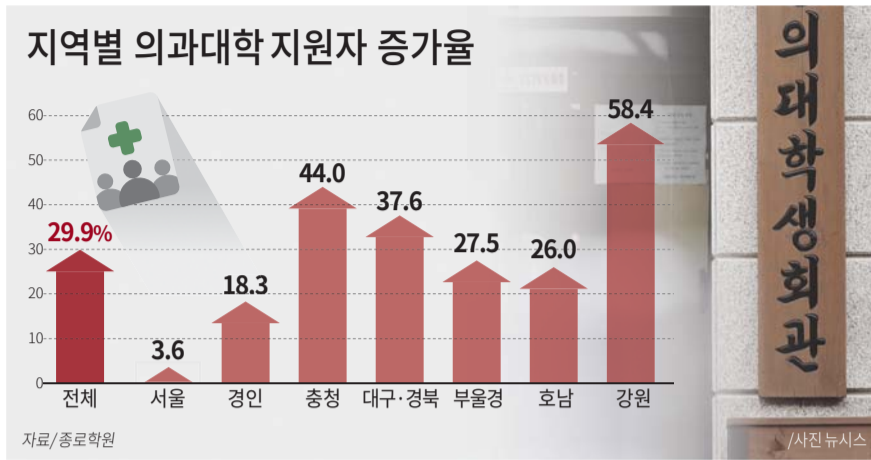
의대 정시 지원자 1만명 넘어 증원 영향에 경쟁률 소폭 하락

최상위권 학생 의대 쏠려... 30%↑
학부전환 완료 이후 최대 규모
SKY 이공계 지원자 줄어 합격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전년보다 무려 30% 증가해 1만명을 넘어섰다. 의대 증원에 따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로 쏠린 결과다. 이에 따라 이른바 'SKY대학' 이공계학과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된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 지원자는 1만519명으로 전년 대비 29.9%(24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학년도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학부 전환이 완료된 이후 최대 규모다. 전국 의대 정시에는 2020학년도 7867명이 지원한 데 이어 ▲2021학년도 7949명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044명 ▲2024학년도 8098명이 지원했다.

올해 전국 39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의대 정시 모집인원이 지



난해 1206명에서 올해 1599명으로 393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중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고신대 25.77대 1 ▲동국대(WISE) 16.33대 1 ▲단국대(천안) 15.95대 1 ▲대구가톨릭대 14.60대 1 순이다.

권역별로 전년 대비 의대 지원자 수 증가상황은 ▲충청권 762명(전년대비 44.0%) ▲대구·경북 502명(37.6%) ▲부산·울산·경남 376명(27.5%) ▲강원권 349명(58.4%) ▲호남권 192명(26.0%) ▲경인권 130명(18.3%) ▲제주권 55명(50.0%) ▲서울권 55명

(3.6%) 등이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 7개 의대 9대 1(전년 9.77대 1) ▲대구·경북권 5개 의대 10.81대 1(전년 11.42대 1) ▲부산·울산·경남 6개 의대 7.2대 1(전년 8.14대 1) 등의 지역은 경쟁률이 낮아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은 메디컬 부문을 제외한 자연계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821명(8.8%) 감소했다. 올해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의대로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진 기자 hj@metroseoul.co.kr

경기도, 5년간 미래인재 5만5000명 키운다

김동연표 대학종합지원 청사진
2029년까지 총 4960억 투입해
반도체·AI빅데이터 등 인재 양성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인재 양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경기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 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도는 오는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원씩, 5년간 총 496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 전환 등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000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000명 등 5년간 5만5000명을 집중 양성한다.

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기업 공동연구도 150건씩 5년간 750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학을 혁신기술의 창업기지로 미

래성장산업(G7) 스타트업 20개사씩 100개 육성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200명씩 1000명과 재직자 400명씩 2000명을 교육해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재직자 배움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더불어 5년간 초광역 산학연 공동협력 프로그램 25건 발굴·운영해 비수도권 지역과의 산업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경기도 RISE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자문·협의를 실시했다.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과 시군, 교육청 등과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라이즈 수행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가 5월까지 최종 선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일반학교에도 장애학생 위해 간호사 배치

서울교육청,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의료적 지원 인공호흡기 관리까지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주 간호사를 배치하는 중도장애학생 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일반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은 학교 내 중도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학기당 1회 학교를 방문해 상담 등을 하고 상주간호사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건강 상태 점검과 의료적 처치를 맡는다. 교육간호사는 학교와 병원을 순회하면서 상주간호사업무와 슬기 교육, 교직원 의료 교육, 학부모 컨설팅 지원 등을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지

원 사업 운영 결과 교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7.1%에 달했다.

올해 일반학교의 확대는 예산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3억 92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통해 학교 내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의료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및 연수, 컨설팅 등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체장애 특수학교 3교와 일반학교 1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 상주간호사를 배치하고, 의료적 지원 범위를 '인공호흡기 관리'까지 확대한다. 또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 소비경기 일부 개선... 내수 부진 여전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동향
감소세였던 소비경기지수 '회복세'
물가 상승, 취업자 수 증가폭 대폭 감소

서울의 소비 경기가 일부 개선되며 경기 하락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형 소매점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는 중이고, 소비자 물가도 소폭 상승한데다 노동 시장까지 얼어붙어 내수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 2024년 12월호'에 따르면, 작년 8~9월 서울 시내 모든 권역에서 감소세였던 소비경기지수가 동년 10월 일부 회복세를 나타냈다. 도심권과 동남권은 증가세로 전환했고, 나머지 권역들은 소

비경기지수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소비 경기는 미미하게나마 개선됐지만, 대형 소매점의 판매 부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백화점 판매액 지수는 작년 8월 -1.8%, 9월 -1.6%, 10월 -1.8%로 석달 연속 마이너스였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4.5%, -7.8%, -5.4%로 침체에 머물렀다.

농·축산물과 공업 제품 등 상품 물가가 뛰면서 서울의 소비자 물가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월(1.4%)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작년 11월 서울의 상품 물가 상승률은 1.1%,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9%로 각각 전월 대비 0.5%포인트, 0.1%포인트 뛰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농·축산

물, 공업 제품, 집세, 개인 서비스 물가가 모두 전월보다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노동 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며 회복세가 둔화됐다. 작년 10월 취업자 수 증감은 2만 4000명으로 전월(6만 4000명)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임금 근로자 수 역시 전년 9월 7만명에서 동년 10월 3만 9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민간 신용 부문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액이 증가했고, 연체율 상승세는 높은 수준에서 지속됐다. 지난해 9월 서울의 예금은행 가계 대출은 전월 371조원보다 2조 1000억원 늘어난 373조 1000억원을,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 360조원과 비교해 1조원 상승한 361조원을 기록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영동1교-청계산 구간 버스전용차로 설치

동남권 개발로 교통수요 증가 대응

강남대로부터 내국 지역을 잇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축이 완성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끝부분인 영동1교에서 현릉로 청계산 입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오는 11월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현릉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서울 동남권(내곡, 세곡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1구간(청계산 입구 교차로~내곡IC) 약 3.2km에 이어 올해 강남대로 영동1교까지 2구간이 뚫리면서 총 4.7km가 연결된다.

향후 3구간(내곡IC~북정역 교차로, 5.0km)까지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설치가 완료되면, 동남권 대중교통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6일 (月)
음력: 12월 7일

수도권 날씨: 1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4/16, 동두천 13/17, 가평 13/17, 파주 13/16, 서울 15/17, 양평 13/17, 인천 16/17, 수원 15/17, 용인 15/17, 평택 14/18, 백령도 13/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유해 4일 고향을 떠나 6일 간의 장례 시작 /사진 뉴시스
▲중국, 10년만 공무원 월급 인상...경제 활성화 의도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발...日정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
▲이란 외무장관 "핵협상 준비돼있다"...트럼프에 대화 신호

▲젤렌스키 "쿠르스크 전투로, 이틀새 북한·러시아군 1개 대대 전멸"
▲파키스탄 남서부 폭발물 테러로 4명 죽고 32명 부상



새해부터
도미노 인상
소비자 한숨 커져
니



Life

CDMO확장 등
미국 활동
노력은 제약바이오
L2



진화한 '휴먼테크'에 비행차까지... 꿈꿨던 미래세계 열린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오는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미래 기술을 공개한다.

다만 올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부스를 차리고 최신 모델과 기술을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플라잉카와 수소 도시 등을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를 보여줄 전망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이 참가한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비온드 앤 모어'를 주제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휴먼 테크'로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세계적인 광학기업 독일 자이스(ZEISS)와 공동 개발 중인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분석해 졸음 운전 등 부주의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 등 총 3가지 휴먼 테크 기술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CES에 참가한 제로원은 현대차그룹이 투자 및 협업



현대모비스 CES2025 전시부스 조감도.



도요타 미래 스마트시티 '우븐시티'.

/도요타

오는 7일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 미래 모빌리티 최신 기술 한곳에

현대모비스, 교감·소통 '휴먼테크' 제로원, 스타트업 10개사 전시 지원 도요타, 미래형 스마트시티 공개 중, 4억대 양산형 '플라잉카' 선보

중인 스타트업 10개사의 기술 전시를 지원한다.

참여스타트업 명단은 딥인사이트(AI 기반 3D센싱 카메라 모듈화 솔루션), 나니아랩스(3D 엔지니어링 데이터 및 AI솔루션), 테라클(PET해중합기반 재생 TPA 및 EG 소재생산), 캡처6(탄소 직접포집기술), 테슬로(다관절 로봇 그리퍼), 매이드(실리콘카바이드 소재 3D 프린트), 쓰리아이솔루션(산업용 중성자 성분 분석기), 스마트 타이어 컴퍼니(형상기억합금 기반 비공압 타이어), 콤테크놀로지스(자율주행차량, 로봇 및 자동화 위험 보험 기술), 인베랩(생태계 교란식물 방제 통합 솔루션) 등이다.

일본에서는 도요타와 혼다가 참가해 기술력을 뽐낸다.

지난 2020년 이후 5년만에 CES에 참

가하는 도요타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미래형 스마트 시티인 '우븐 시티'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효를 예고한 만큼 수소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븐 시티는 도요타가 2020년 CES에서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우븐 시티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다. 자율주행차와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도 대거 공개할 전망이다.

혼다는 이번 CES 2025에서 '혼다 제로(Honda Zero)' 시리즈의 두가지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다. 혼다 제로 시리즈는 ▲얇고 ▲가볍고 ▲지능적인을 모토로 한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됐다.

중국 '모듈식 비행 자동차'(플라잉카)를 선보인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핑의 자회사 샤오핑 에어로 HT는 CES 2025에서 플라잉카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LAC)을 공개할 예정이다. 5명의 승객 수송 능력과 완충 시 최대 1000km의 주행거리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LAC의 양산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가격은 약 200만 위안(약 4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지커도 나선다. 지커는 이번 CES 2025에서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의 고성능 전기차 지커 001 FR, 4인승 대형 다목적차량(MPV)인 지커 009 그랜드, 도시 주행에 최적화된 콤팩트 MPV 지커 믹스 등 3가지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근 기자 ysw@metroseoul.co.kr

젠슨 황·리사 수... AI 반도체 거물 '총출동'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대표 한자리에 젠슨황, 기조연설... 신제품 공개 기대 리사 수, 기자간담회서 '라데온' 발표 SK하이닉스, 5세대 HBM 16단 공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가전쇼인 'CES 2025'가 미래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들의 전쟁터가 됐다. AI 기술 빅뱅 이후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AI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7일부터 10(이하 현지시간)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하고 젠슨 황, 리사 수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직접 기조발언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 수장들의 기조연설 중 가장 큰 주목을 끄는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리사 수 AMD CEO다.

AI 생태계 최상위에 위치한 엔비디아

의 수장 젠슨 황은 6일 오후 6시 30분 시작하는 CES 2025 기조연설에 참가한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매년 CES에서 차세대 게이밍 GPU인 지포스 RTX 신제품을 공개한 만큼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히 여겨지는 사양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 '블랙웰(Blackwell, B100·B200)'을 탑재한 지포스 RTX50 시리즈다.

리사 수 AMD CEO는 젠슨 황보다 6시간 이상 앞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외 행보를 갖는다. 간담회에서 리사 수는 엔비디아 지포스 시리즈의 맞수격인 '라데온(REDEON)'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CPU 신제품인 라이젠(RYZEN) 차세대 모델의 공개 여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파트너십 발표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 두 기업의 대표가

한날 공식성상에 서면서 외신과 업계 관계자들은 AI 가속기를 둘러싼 두 기업의 경쟁구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I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의 핵이 된 만큼 우리 기업들도 AI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상품을 쏟아낼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광노정 대표이사 CEO 등 C-레벨 경영진이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이번 전시에서 작년 11월에 개발을 공식화한 5세대 HBM(HBM3E) 16단 제품 샘플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해 업계 최고층인 16단을 구현하면서도 칩의 휨 현상을 제어하고 방열 성능을 극대화했다.

딥엑스는 델과 HP 등 글로벌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기업들과 협력한 고성능 AI 솔루션을 선보이고 양산 검증성과와 함께 다양한 응용 시스템 간 연동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이클립사 오디오 탑재 TV 공개

CES2025서 3D 오디오 기술 선포 "IAMF 기술로 新오디오 표준 정립"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시간 7일부터 열리는 CES 2025에서 구글과 공동 개발한 3D 오디오 기술 '이클립사 오디오(Eclipsa Audio)'를 탑재한 TV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클립사 오디오는 IAMF(Immersive Audio Model and Formats) 기술을 기반으로 소리의 위치와 강도, 공간 반사음 등의 음향 데이터를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3차원 공간에 있는 듯한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크리스탈 UHD 모델부터 Neo QLED 8K까지 전 라인업에 IAMF 기술을 공식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TV 전용 유튜브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IAMF 기술이



삼성전자 Neo QLED 8K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적용된 3D 오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손태용 부사장은 "CES 2025에서 3D 오디오 기술을 탑재한 Neo QLED TV를 통해 차세대 몰입형 오디오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IAMF 기술을 통해 업계에 새로운 오디오 표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최신식 구장에 등지 트는 한화 이글스... "가을 야구 가자"
▲김혜성 다저스행... 5번째 빅리거 배출한 키움 "자부심 느낀다" /사진 뉴스스

▲프로축구 FC서울, 중앙 수비수 이한도 영입... 새 시즌 전력 보강
▲'佛슈퍼컵 2연패 도전' 이강인, 모나코 꺾고 새해 첫 우승 정조준

▲프로배구 KB손보, 레오나르도 감독 선임... 쵸쿼터도 교체
▲임성재, PGA 개막전 3R에서 11언더파... 단독 4위 도약